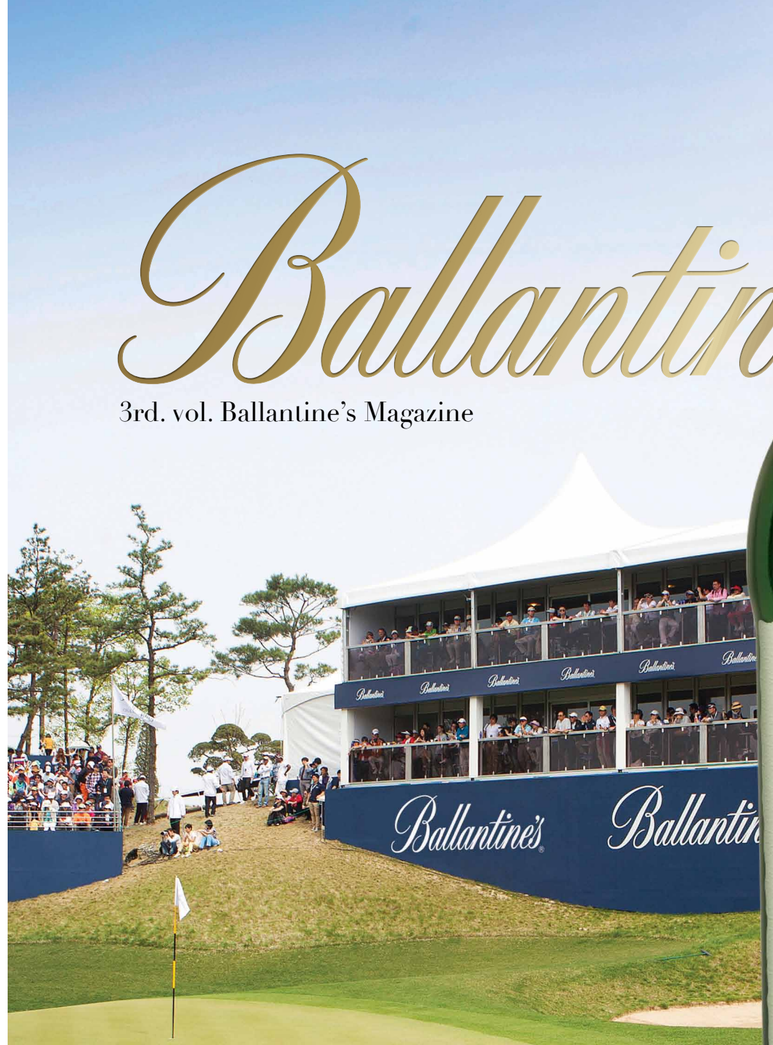
Ballantine's

LEAVE AN IMPRESSION

Ballantine's

3rd. vol. Ballantine's Magazine



—

True Character Leaves a Lasting Impression
2012 발렌타인 챔피언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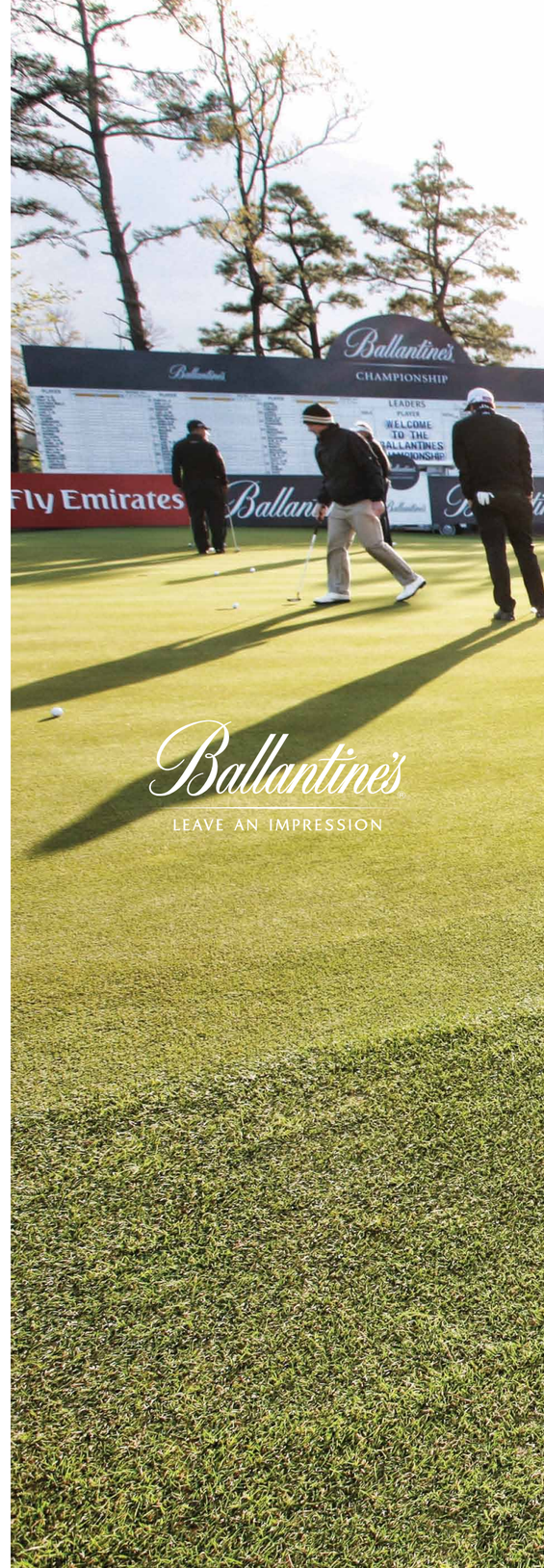
Ultimate Aspiration Realised
조지 발렌타인의 200여 년 열망의 실현
발렌타인 40년

Great Success Stories of Luxury Brands
시대를 관통하는 헤리티지, 그리고 성공의 법칙
발렌타인 & 타이틀리스트

Unique Experience with Star Players
대런 클라크 / 양용은

Discover Tastes of Ballantine's
발렌타인에 녹아드는 그들만의 의미 있는 시간

Titleist
Ballantine's
Ballantine's


Ballantine's
CHAMPIONSHIP
LEADERS
PLAYER
WELCOME
TO THE
BALLANTINES
CHAMPIONSHIP
Fly Emirates
Ballantine's
LEAVE AN IMPRESSION

George Ballantine's Entrepreneurial Spirit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공유하다
발렌타인과 골프

스코틀랜드가 세상에 선사한 가장 큰 선물 두 가지를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세계적인 스카치 위스키 브랜드 '발렌타인'과 가장 고급스러운 스포츠 중 하나인 '골프'일 것이다. 각각의 분야에서 존재 자체만으로도 압도적인 상징성을 가지는 이 둘은 미래를 내다보고 새로운 사고를 지향하는 기업가들이 사랑하는 명품이자 시대를 넘어 이어오는 기업가 정신이 반영된 위대한 유산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공통 분모를 가진다.

Ballantine's
LEAVE AN IMPRESSION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된 영광과 예견된 미래

발렌타인과 골프가 탄생하고, 성장하여,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게 되기까지의 그 모든 순간들은 스코틀랜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골프의 기원은 1450년 초 스코틀랜드의 '세인트 앤드류(St. Andrews)' 지역에서부터 비롯되며 발렌타인 역시 1827년, 창시자 '조지 발렌타인(George Ballantine)'이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처음 주류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오랜 역사의 문을 열었다. 조지 발렌타인은 시대를 앞서가는 선견력으로 블렌디드 위스키를 상품화시켰으며, 고연산 위스키 시장의 미래를 내다보고 이를 세계적인 비즈니스로 발전시킨 선지자적 인물이다. 또한 그는 기업가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골프 스폰서십을 통해 이 둘을 블렌딩하기도 했다. 스코틀랜드의 가장 위대한 두 가지 유산이 조지 발렌타인에 의해 처음 만나는 순간이었다.

CEO가 사랑하는 위스키, 기업가 정신을 품은 스포츠

발렌타인은 조지 발렌타인이 만든 고품질의 위스키가 당시 상류 사회의 수요를 만족시키면서 급격하게 성장하게 된다. 특히 1895년에는 발렌타인 위스키의 부드럽고 조화로운 맛과 향에 감동한 빅토리아 여왕으로부터 왕실의 공인 인증서인 '로얄 워런트(Royal Warrant)'를 수여받으면서, 프리미엄 블렌디드 위스키의 상징으로서 그 명성은 세계를 향해 뻗어 나가기 시작했다. 이렇듯 이미 19세기부터 럭셔리 라이프스타일을 이끌어 온 발렌타인은 현재도 수많은 오피니언 리더와 위스키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CEO가 사랑하는 명품 브랜드'로 손꼽힌다. 기업가 정신을 품은 스포츠로 불리는 골프도 마찬가지다. 룰과 에티켓을 기본으로 성공한 남자의 상징에 비유되는 품격 높은 스포츠, 골프는 일찍이 비즈니스맨과 전문직 종사자들이 주로 즐겨 왔다. 골프를 사랑하는 사람들 중 발렌타인 위스키 애호가가 유독 많은 것은 이처럼 주된 수요층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 시대의 진정한 명품으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발렌타인과 골프. 이들의 만남은 '발렌타인 챔피언십'으로 이어지며 전 세계 명성 있는 골프대회의 새로운 기준을 세워 나가고 있다.

한 분야에 모든 것을 거는 장인정신

명작 혹은 명경기를 위해서는 헌신과 열정, 예술에 가까운 완벽한 솜씨가 필수라는 점에서도 발렌타인과 골프는 많은 가치를 공유한다. 프로 골퍼로서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대회에서의 한 샷 한 샷에 자신의 모든 경험과 기술, 극도의 집중력과 완벽을 추구하는 정신이 반영되어야 한다. 발렌타인 위스키의 복합적인 맛과 향의 조화 또한 장인정신과 오랜 기다림의 결과물이다. 우드로 만들어진 골프채와 고무로 만들어진 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도 그 본질을 지키며 현대적인 스타일로 변화해 왔듯이, 발렌타인 역시 보틀과 패키지 디자인은 현대적으로 발전시켜 오면서도 약 200여 년 동안 단 5명의 마스터 블렌더만이 일관된 시그니처 스타일을 한결같이 지켜내는 수호자 역할을 하고 있다.

Ballantine's Magazine

3rd. vol.

CONTENTS

07

18

60

83

Heritage

07. Great Success Stories of Luxury Brands
시대를 관통하는 헤리티지, 그리고 성공의 법칙
발렌타인 & 타이틀리스트

Lifestyle

13. True Character Leaves a Lasting Impression
2012 발렌타인 챔피언십

14. Opening Ceremony of 5th Ballantine's Championship
발렌타인 챔피언십, 그 나흘간의 대장정을 위한 축배
별들의 축제 '갈라 디너'

18. The 5th Champion
명예로운 우승 타이틀을 거머쥔 발렌타인 챔피언십의 5번째 주인공

24. Unique Experience with Star Players
세계적인 프로 골퍼와 함께한 특별한 시간
대런 클라크 / 양용은의 골프 클래스

26. Great Players Always Leave an Impression
필드를 뜨겁게 달구었던 그들이 남긴 인상

32. Leave a Remarkable Impression
다양한 공간에서 이어지는
발렌타인 챔피언십의 스토리와 감동의 여정

Innovation

44. Ballantine's Crest
발렌타인 40년을 통해 재조명된
발렌타인 고유의 문장

46. Ultimate Aspiration Realised
조지 발렌타인의 200여 년 열망의 실현 '발렌타인 40년'

48. When the Time is Right
발렌타인 40년을 만나는 순간

60. Launch of Ballantine's 40 Year Old
두 거장의 손길과 40년의 세월이 빚어낸 궁극의 가치

Art of Blending

77. How Much Do You Know about Whisky?
발렌타인에 녹아드는 그들만의 의미 있는 시간
발렌타인 멘토링 프로그램

Ballantine's Pick

83. Global Trend in Art & Culture
발렌타인이 추천하는 국내 및 해외 축제 / 행사 소식

86. Classic with a Modern Edge
클래식한 품격을 모던함에 담은 색다른 공간 'B2M'

88. Cozy, Comfy and Relaxing
하늘, 달, 별을 보며 발렌타인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아지트 '수작'

Journey to Ballantine's

최고를 넘어 완벽으로 향하는 두 브랜드가 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그들의 새로운 성공 신화는 현재진행형이다.

01 Heritage

Great Success Stories of Luxury Brands

시대를 관통하는 헤리티지, 그리고 성공의 법칙
발렌타인 & 타이틀리스트

일관성과 혁신은 언뜻 보면 서로 반대의 축에 놓여진 단어 같지만, 명품 브랜드를 얘기할 때에는 공통점으로 쓰일 수 있을 것도 같다. 발렌타인과 타이틀리스트, 이 두 브랜드는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켜오고 있는 진귀한 가치들과 진화를 거듭하는 탄탄한 제품력으로 말미암아 프리미엄을 알아볼 줄 아는 이들 안에서 진정한 명품으로 그 빛을 발하고 있다.

엉뚱하지만 창의적인 헤리티지의 시작, 엑스레이와 거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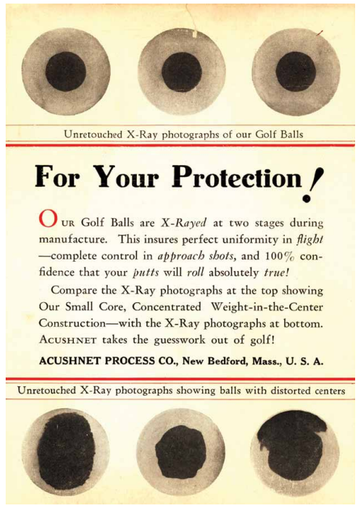
오직 최고의 골프볼을 만들겠다는 열정 하나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업계 최고의 골프볼을 만들어 오고 있는 타이틀리스트 골프볼의 탄생은 다소 엉뚱하지만 기발한 호기심에서부터 비롯됐다. 1932년 당시 고무 자재 업체를 운영하던 필 영(Phil Young)은 치과의사인 친구와 취미로 골프를 치던 중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분명 잘 맞은 퍼팅이 계속해서 홀 컵을 비켜갔던 것. 골프볼의 성능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된 그는 친구의 치과로 가서 골프볼을 엑스레이로 일일이 촬영해 보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볼마다 코어가 정중앙에 위치해 있지 않고 제각각이라는 치명적인 결함을 발견하게 된다. 이에 MIT 공대를 졸업한 필 영은 자신의 전공을 십분 발휘해 일관성 있는 성능과 품질의 골프볼을 만드는 데 착수했고, 3년 여간의 연구 끝에 드디어 업계 최초로 코어와 모양이 일관된 첫 작품을 완성시킨다. 오늘날 '역사상 최고의 볼'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이 볼에 필 영은 '타이틀리스트'라는 이름을 붙인다. 이것이 현재 전 세계 골프 투어를 장악하고 있는 골프 브랜드, 타이틀리스트의 시작이다.

필 영은 이 완벽한 골프볼을 탄생시키기 위해 MIT 동문이자 고무 전문가인 프레드 보머를 초빙하는가 하면 또 최초의 스윙 머신을 개발하기도 했다. 이 스윙 머신의 일관된 스트로크는 타이틀리스트 볼 또한 일관된 성능을 가지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최고 성능의 골프볼을 만들어 내기 위해 최상의 기술력을 총동원하고 지치지 않는 열정을 다하려는 전통은 8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타이틀리스트의 헤리티지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타이틀리스트는 현재도 신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엄격한 기술진의 평가와 프로 선수의 철저한 현장 검증을 거친다.

세계적인 블렌디드 위스키 브랜드 발렌타인 역시 그 속을 들여다보면 흥미로우면서도 차별화된 사고가 돋보이는 한 가지 일화를 발견할 수 있다. 19세기 당시 스코틀랜드에는 위스키 숙성 창고에서 종종 술을 훔치는 좀도둑들이 있었다. 이에 고민하던 발렌타인가(家)는 청각이 예민한 거위를 기르는 것으로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했다. 이 100여 마리의 거위 군단은 창고 주위를 돌아다니다가 거동이 수상한 사람이 나타나면 밤낮없이 큰소리로 외쳐대는 것은 물론, 때로는 단체로 공격을 가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좀도둑들은 감히 위스키 창고에 침범할 생각을 할 수 없었다. 이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서 거위 군단은 지금도 발렌타인의 숙성 창고를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덤바튼에 있는 발렌타인 공장은 현재 관광 명소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으며, 24시간 거위의 호위를 받는 이곳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이같이 남들과 다른 차별화된 사고는 발렌타인의 창시자 조지 발렌타인의 작은 상점에서부터 이미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항상 새로운 사고를 지향했던 조지 발렌타인은 그 자신의 이름을 위스키 라벨에 표기해 고정 고객을 확보하기 시작했으며, 거위 군단을 활용한 색다른 잡지 광고 등을 통해 인지도를 높여 나갔다. 또한 조지 발렌타인과 그의 아들은 사우스브리지의 School of Arts, 켈소의 Market Square, Egyptian Building 옆의 100 Union Street 등 상징적인 건물을 선택하여 상점을 개설하였으며, 위스키 라벨에 자신만의 마크를 다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과 혁신을 추구하는 이색적인 마케팅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처럼 조지 발렌타인과 그의 아들들이 걸어온 남들과 다른 행보는 독자적인 브랜드 구축의 발판이 된 것은 물론, 200여 년을 이어 온 브랜드의 소중한 유산으로 전해지고 있다.

타이틀리스트가 최초로 선보인 지면 광고
X-레이로 골프볼의 내부를 직접 촬영해서 타사 제품(광고 하단)에 비해 타이틀리스트 골프볼(상단)의 기술력이 얼마나 우수한 지를 보여주고 있다



시대를 앞서가는 안목과 새로운 도전이 낳은 창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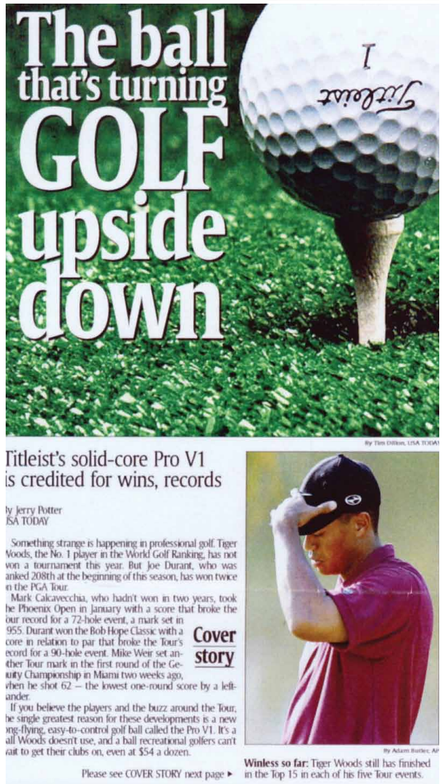
언제나 새로운 것,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도전 정신과 미래를 내다보는 선지력,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력은 때때로 가히 예술에 가까운 걸작을 탄생시키곤 한다. 발렌타인의 단순한 창업자가 아닌 선지자로 평가받고 있는 조지 발렌타인 또한 시대를 앞서가는 눈과 완벽한 밸런스를 실현하는 장인정신, 높은 기술력으로 고연산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를 세상에 선보일 수 있었다. 그는 숙성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었으며 최고의 블렌딩이 빚어내는 맛을 창조하기 위해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오랜 세월 동안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을 기울인 끝에 현재의 '발렌타인' 블렌드를 탄생시켰다.

그에 그치지 않고 최상의 원액으로 최고의 위스키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열망과 의지가 강했던 그는 후대 마스터 블렌더들의 영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결국 그 열망은 오랜 인내의 세월을 거쳐 '발렌타인 40'이라는 전에 없던 고귀한 결정체로 실현되었다. 모든 생산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최고연산의 위스키를 매년 출시하는 것은 그만한 노하우와 기술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원액의 80% 이상이 증발된다는 수치만으로도 발렌타인 40의 진가는 충분히 입증된다. 영국 최고의 세공 장인 리차드 폭스의 손길이 닿은 발렌타인 40의 보틀 또한 이 특별한 위스키의 품격과 가치를 더욱 높여준다. 그 높은 가치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기 위해 '발렌타인 40'은 연간 전 세계에 단 100병만 생산될 예정이다.

매 출시 때마다 앞선 기술로 혁신적인 골프볼을 선보여온 타이틀리스트는 지난해 6세대 Pro V1을 출시하며 계속해서 골프계의 선지자로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Pro V1 시리즈는 타이틀리스트가 세계 시장점유율 50%를 달성할 수 있게 해준 핵심 무기이자, 골프볼의 기술적 진화의 한계를 계속해서 넘어서고 있는 베스트셀러다. 지난 2000년에 출시된 이 제품은 2011년 출시된 6세대 Pro V1까지 약 10년 동안 전 세계 시장에서 7,000만 더즌(12개 한 세트)이 팔려 나갔다.

또한 Pro V1은 긴 비거리와 쇼트 게임 컨트롤을 동시에 만족시켜 주는 최초의 골프볼로, 출시 첫 주에 무려 마흔일곱 명의 선수가 시즌 중간에 볼을 Pro V1로 교체하면서 역사상 '가장 많은 선수들이 용품을 바꾼 대회'라는 진기록을 낳기도 했다. 이후 타이틀리스트는 거의 2년에 한 번꼴로 향상된 제품을 내놓으며 빠른 진화를 거듭해 왔으며, 2004년에는 '메이저 대회 4관왕'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기며 '최고의 골프볼'로서의 1위 자리를 더욱 견고히 하였다. 또한 2007년에 세운 전 세계 주요 투어 통산 1,000회 우승이라는 경이로운 기록과 함께 지금까지 최다 우승, 최장 기간 넘버원의 자리를 한 번도 내놓지 않았다. 이번 시즌, 타이틀리스트가 출시한 새로운 골프볼 6종 역시 골퍼들의 다양한 요구와 퍼포먼스를 충족시키기 위해 모델별로 특허 기술과 공법이 적용되었으며, 처음으로 컬러볼과 비거리를 극대화한 골프볼 등을 선보이며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발렌타인의 설립자 '조지 발렌타인'



타이틀리스트 신문 1면 기사

2001년 당시, 미국 주요 일간지 USA 투데이에서는 Pro V1을 '골프계의 판도를 뒤집어 놓은 골프볼'로 1면에 대대적으로 소개하였다

타이틀리스트 골프볼 패키지

최근 타이틀리스트는 혁신적인 기술로 업그레이드된 2011년 형 Pro V1(왼쪽)과 Pro V1x(오른쪽)을 선보였다

혁신과 일관성에서 비롯되는 믿음은 세월만큼 쌓인다

두 브랜드가 명품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변해야 하는 것과 변해서는 안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다. 200년이 넘는 발렌타인의 긴 역사 속에서도 조금도 변하거나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은 완벽한 균형감을 이루는 발렌타인 고유의 맛과 향이다. 그 타협할 수 없는 맛과 일관성을 지켜 낼 수 있는 비결은 '마스터 블렌더'라는 존재를 제외하고는 설명할 수 없다. 200여 년 동안 오직 5명의 마스터 블렌더만이 발렌타인의 품질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발렌타인만의 불변하는 가치를 대를 이어 전수하는 숭고한 수호자 역할을 해오고 있다. 현 마스터 블렌더 샌디 히슬롭 역시 "마스터 블렌더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일관성과 품질을 지키는 것"이라며 "발렌타인의 블렌딩은 세대를 이어 일관성 있게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발렌타인 위스키만의 완벽한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한 마스터 블렌더들의 열정과 직관, 경험이 실현하는 '아트 오브 블렌딩(Art of Blending)'이야말로 오늘날의 발렌타인을 존재하게 하는 위대한 유산임과 동시에 발렌타인이 진정한 프리미엄 위스키로 자리하게 된 이유다. 물론 모든 부분이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발렌타인의 보틀과 라벨은 지금까지 시대에 맞게 혁신적으로 변화해 왔다. 2011년에는 일부러 드러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돋보이는 발렌타인만의 품격과 명성을 반영하면서도 더욱 고급스럽고 모던해진 디자인의 보틀을 새롭게 선보이기도 했다. 또 때에 맞춰 스페셜 블렌드를 출시하기도 하는데, 스코틀랜드 4개 지역에 자리잡은 각 시그니처 디스틸러리의 특성을 반영하여 한정적으로 선보이는 '발렌타인 17 글렌버기'와 '발렌타인 17 스카파'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이 스페셜 에디션들은 발렌타인 특유의 우아하고 균형 잡힌 부드러움을 지니면서도 각 지역의 특색을 잘 담고 있어 발렌타인 애호가들에게도 색다른 즐거움을 전한다.

타이틀리스트는 골프업계 리딩 브랜드로서 비거리 뿐만 아니라 타구감, 스핀의 3박자를 모두 갖춘 토탈 퍼포먼스를 지향하는 볼을 개발해 왔다. 또한 예전부터 투어 선수로부터 인정받아야 아마추어 골퍼 또한 공략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다. 이에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투어 선수들에게 타이틀리스트 볼의 사용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했고 점차 투어 선수들이 타이틀리스트 볼의 성능과 퍼포먼스를 믿고 선택하기 시작했다.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한 타이틀리스트는 1949년 US 오픈에서 '선수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볼'로 지목되었고, 이후 정상의 자리를 꾸준히 이어온 결과 2012년 상반기에는 PGA투어 사용률 1위(66%), KPGA투어 사용률 1위(67%), LPGA투어 사용률 1위(68%), KLPGA투어 사용률 1위(58%)를 기록하는 등 투어 선수들의 압도적인 신뢰를 받고 있다.*

다시 말해 오직 최고의 골프볼을 만들겠다는 목표와 끊임없는 연구 개발이 혁신적이면서도 일관된 품질을 유지하는 골프볼을 꾸준히 선보일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고, 이를 통해 계속해서 상승해 온 타이틀리스트에 대한 신뢰도와 선호도가 곧 투어 사용률을 비롯한 각종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타이틀리스트는 바로 이 믿음과 일관성으로 골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세계 투어에서 1,500회 이상 우승을 기록하고 7,000만 더즌 판매, 20억 달러 판매고를 올리는 성공 신화를 낳았다.

* 출처 _ 데럴 서베이 및 타이틀리스트 자체 조사

TIMELESS BALLANTINE'S

명품 브랜드의 명성은 수 세기에 걸쳐 차곡차곡 쌓인 작지만 위대한 사건들의 집합체다. 그들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신제품 혹은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고객들을 놀라게 하고, 선조의 장인정신을 증명한다. 신사들의 술이라 여겨지는 위스키 발렌타인, 귀족 스포츠 골프를 상징하는 타이틀리스트 모두 그런 점에서 최고의 브랜드라 칭송받을만하다.

*위 자료는 매거진 LUXURY 2012년 4월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한국이 사랑하는 브랜드, 한국을 사랑하는 브랜드

국내 골프용품 시장의 규모는 의류를 제외하고 대략 8,000억 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골프볼 시장은 1,500억 원에 달하며 그 성장세 또한 가파르다. 또한 국내 골퍼 2명 중 1명은 타이틀리스트의 골프볼을 사용한다. 특히 타이틀리스트의 Pro V1은 라운드를 돌다 로스트 볼(lost ball)로 발견될 때 가장 반가운 골프볼로도 정평이 나 있다. 이러한 점은 국내에서의 타이틀리스트 골프볼의 인기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최상의 품질을 추구하는 한국의 골퍼들이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타이틀리스트를 만났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만큼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타이틀리스트 역시 한국 시장과 소비자들에게 강한 애착을 보이고 있다. 타이틀리스트의 제리 벨리스 사장이 한국을 자주 방문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는 출장 길에 오를 때 한국말로 쓰여진 자신의 명함을 반드시 챙긴다. 미국 매사추세츠 본사 부근에서 만든 이 명함에 대해 제리 벨리스 사장은 "매출로만 따지면 한국 시장은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시장"이라며 "한국 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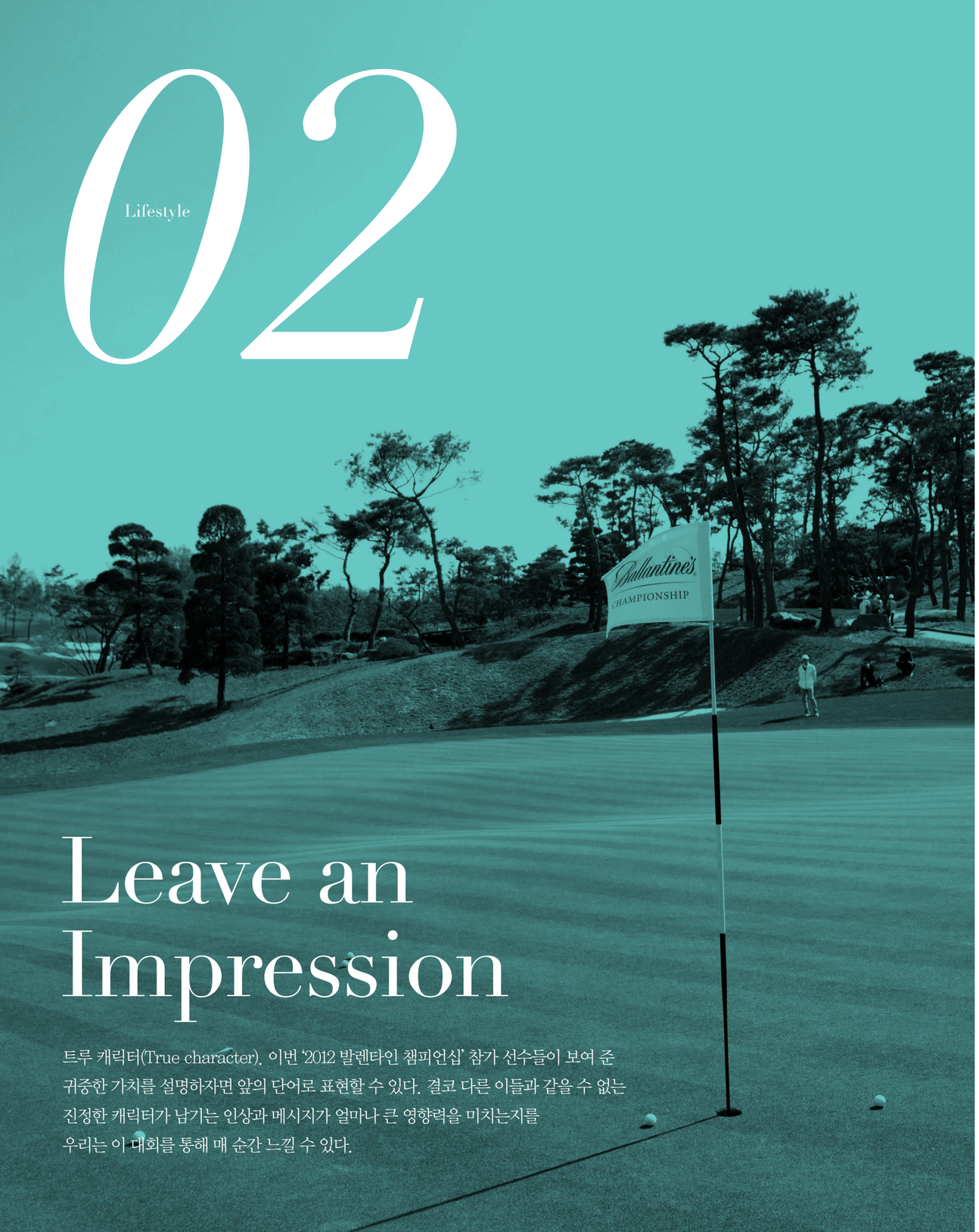
2010년에는 색다른 광고 컨셉으로 한국 시장에 한 발 더 다가서기도 했다. 타이틀리스트의 광고는 원래 전 세계에 동일한 내용의 광고를 방영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브랜드의 가치를 광고 안에서도 일관되게 유지하려는 전략인 것. 하지만 한국에 대한 각별한 사랑은 타이틀리스트의 경영 원칙에도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타이틀리스트는 한국판 광고를 따로 제작하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다. 광고에는 한국프로골프투어에 참여한 국내 프로 선수들을 등장시켜 그들의 경기 모습과 사용 소감 등을 진솔하게 담아냈다. 타이틀리스트의 남다른 한국 사랑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전 세계에서 1초에 2병씩 판매되고 있는 발렌타인 위스키 또한 한국 소비자들에게 특히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다. 발렌타인은 그 명성에 걸맞게 지난 10년간 IWSC 세계 주류 경진대회 금메달 획득, ISC 세계 주류 챌린지 3년 연속 '최우수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 선정, 올해의 디스틸러리 3년 연속 수상 등 권위 있는 각종 국제 주류 품평회에서 60회가 넘는 상을 받아 가장 많은 상과 트로피를 수상한 위스키 브랜드 중 하나로 꼽힌다.

17년산 이상 프리미엄급 위스키의 최대 소비국 중 하나인 한국에서는 1989년 출시된 이후 9년 연속 'CEO가 가장 선호하는 명품브랜드', '소비자 선호도 1위', '소비자 인지도 1위', '인천공항 면세점 판매 1위 브랜드' 등을 기록하며 위스키 애호가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다. 발렌타인 17은 특히 한국 소비자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제품이다. 부드러우면서도 균형 잡힌 블렌딩의 깊은 맛과 향이 오랜 여운을 남겨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위스키'로서 최고급 위스키 라이프스타일을 이끌고 있다.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전 세계 면세점에서 한국 여권 소지자가 발렌타인 30을 가장 많이 구매한다는 것 또한 이미 업계에서 공공연한 사실이다. 발렌타인 위스키의 한국 소비량이 많은 이유는 한국인의 주류 소비 패턴이 많이 마시는 쪽보다는 위스키 맛을 제대로 음미하자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고급 위스키를 즐길 줄 아는 입맛을 가지고 있고, 좋은 술로 상대를 대접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발렌타인은 이에 국내에서 위스키를 깊이 있게 테이스팅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테이스팅 퍼스트 컬쳐'를 이끌고 있다. 발렌타인 챔피언십 역시 한국에서 받은 큰 사랑을 조금이나마 한국 사회에 환원하려는 발렌타인의 노력의 일환이다.

02

Lifestyle



Leave an Impression

트루 캐릭터(True character). 이번 '2012 발렌타인 챔피언십' 참가 선수들이 보여 준 귀중한 가치를 설명하자면 앞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 결코 다른 이들과 같을 수 없는 진정한 캐릭터가 남기는 인상과 메시지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우리는 이 대회를 통해 매 순간 느낄 수 있었다.

True Character Leaves a Lasting Impression

진정한 캐릭터는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2012 발렌타인 챔피언십

우승을 향해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는 숨막히는 결전이 열리는 전장이자, 전 세계의 별들이 자신만의 개성과 기량을 맘껏 펼치는 축제의 장. 매년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 속에 터져 나오는 탄식과 그 어느 때보다도 열띤 환호가 필드를 가득 메우는 발렌타인 챔피언십, 그 드라마틱한 나흘간의 대장정이 올해도 어김없이 시작되었다.

200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발렌타인 챔피언십의 그 다섯 번째 막이 올랐다. 이번 대회는 국내 최초이자 국내 유일의 유러피언 투어답게 양용은, 대런 클라크, 아담 스콧, 미구엘 앙헬 히메네즈, 이안 폴터 등 세계 최고의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참여, 국내외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큰 주목을 받았다.

2011년의 성공적인 대회에 이어 2012 발렌타인 챔피언십 역시 이천 블랙스톤 골프 클럽에서 4월 26일부터 4월 29일까지 나흘간 개최되었다. 블랙스톤 골프 클럽은 아시아에서 가장 품격 높은 골프 클럽 중 하나로, 세계 최고의 골프 기량을 마음껏 선보일 수 있는 완벽한 무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곳이다.

전 세계 명성 있는 국제 골프대회의 또 하나의 기준을 세운 이번 '2012 발렌타인 챔피언십'은 총 상금 220만 유로(한화 약 33억 원)로 국내 최대 상금 규모를 자랑한다. 이 대회를 통해 발렌타인은 그 동안 한국인들에게 받은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고, 한국의 젊은 골프 선수들에게 세계적인 선수들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훌륭한 선수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해 주겠다는 의지다.

2012년은 발렌타인과 유러피언 투어에 있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이기도 하다. 바로 최상의 골프대회로 전 세계 골프 수준을 높여 온 유러피언 투어가 40주년을 맞이한 것. 발렌타인에게도 지난 40년은 전 세계를 무대로 최상급의 품질과 명성을 지키고 쌓아온 중요한 시간들이었다. 이 긴 시간을 지나 발렌타인은 최근 최상급 원액의 품질과 장인정신의 절정인 '발렌타인 40'을 출시하며 가장 고급스러운 위스키로서의 명성과 그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발렌타인은 2012 발렌타인 챔피언십을 기념하여 '트루 캐릭터(True character · 진정한 개성)'라는 글로벌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캠페인은 정신력, 그 중에서도 특히 좋은 의사 결정의 골프 경기를 성공으로 이끌어 내는 과정과 그 속에서 선수들이 자신만의 진정한 캐릭터에 충실하여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지가 우승만큼이나 값지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다. 이번 대회 역시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경기를 통해 과감함과 용기, 독창성, 긍정적인 태도, 인내력 등 자신만의 캐릭터를 드러내며 그들이 왜 존경받고 기억되는지를 직접 입증한 자리였다.

Opening Ceremony of 5th Ballantine's Championship

발렌타인 챔피언십, 그 나흘간의 대장정을 위한 축배
별들의 축제 '갈라 디너'

발렌타인 챔피언십에 출전하는 스타 플레이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주목할 것은 그곳이 필드 위가 아닌 나흘간 펼쳐질 세기의 라운딩을 기념하는 전야제, 갈라 디너의 현장이었다는 것. 그곳은 벌써 바로 이틀 뒤부터 시작되는 발렌타인 챔피언십에 대한 설레임과 발렌타인의 무드로 가득 차 있었다.

01

02

03

04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들이 한자리에

지난 4월 24일, 남산에 위치한 하얏트 호텔에서는 2012 발렌타인 챔피언십 오픈을 기념하기 위한 갈라 디너가 열렸다. 26일부터 나흘간 경기도 이천 블랙스톤 골프 클럽에서 열리는 발렌타인 챔피언십에 앞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대회 참가자인 대런 클라크, 양용은, 김경태, 이안 폴터, 미구엘 앙헬 히메네즈, 배상문 그리고 아담 스콧 등이 모두 참석하여, 이번 대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하고 볼거리가 다양한 별들의 전쟁이 될 것을 예고했다.

사실 그들은 골프 팬들은 물론, 같은 골프 선수들조차 가까이에서 만나기 힘든 정상급 스타 플레이어들. 필드 위에서는 숨소리조차 죽이고 긴장의 날을 세우며 서로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선수들이지만, 이날 갈라 디너에서만큼은 여유로운 모습으로 등장, 발렌타인 챔피언십을 기념하고 함께 축배를 올리기 위한 갈라 디너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날 행사는 2012 발렌타인 챔피언십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임과 동시에, 세계적인 위스키 브랜드 발렌타인의 최대 시장인 한국의 소비자들과 골프 선수들이 한자리에서 만나 함께 발렌타인 위스키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세계적인 선수들은 발렌타인 챔피언십을 기념하기 위해 찾아 준 많은 하객들과 함께 주최측에서 제공한 발렌타인 17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가졌다. 기분 좋은 만찬을 즐기는 동안에도 축하 공연 등 특별한 이벤트는 계속되어 발렌타인과 골프를 사랑하는 이들 간에 뜻깊은 나눔의 시간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

01. 무대 위에서 선보인 Haggis 퍼포먼스에 7명의 스타 플레이어들도 함께 참여했다
02. 정상급 선수들과 많은 하객들이 참석한 하얏트 호텔의 갈라 디너 현장
03. 2012 발렌타인 챔피언십을 기념하여 제작된 스코틀랜드 전통 위스키잔인 퀘익(Quaich)
04. 스타 플레이어들이 칵테일 쉐이킹 등 다양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01

02

03

04

05

01. 갈라 디너가 진행된 홀 내에서 미디어 아트 영상이 상영되고 있다
02. 선수들이 스코틀랜드의 전통적인 동작을 취하며 입장하고 있다
03. 쇼케이스에 전시된 2012 발렌타인 챔피언십 블렌드에 대한 설명을 경청하고 있는 선수들
04. 세레모니 진행을 맡아 유쾌한 분위기를 이끌었던 피터 프렌티스
05. 미구엘 앙헬 히메네즈 선수에게 사인을 요청하고 있는 하객

슬란지바! 최고의 토너먼트를 위한 축배를 들다

갈라 디너의 성대한 시작을 알리는 오프닝 멘트와 짧은 소개에 이어 역대 발렌타인 챔피언십 대회에 참가한 플레이어들의 우승 장면들과 모든 이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하이라이트 장면들이 공개되었다. 회를 거듭할수록 그 명성을 더해가고 있는 발렌타인 챔피언십의 어제와 오늘을 한눈에 만나본 국내외 VIP들과 하객들이 기대와 환영의 박수를 보내는 가운데, 경기에 참가하는 주요 선수들이 등장하면서 갈라 디너의 밤은 서서히 뜨거워졌다. 특별히 스코틀랜드 출신인 피터 프렌티스가 이날 세레모니 진행을 맡아 발렌타인의 고향인 스코틀랜드 정통의 뉘앙스로 선수들을 소개해선지 발렌타인 고유의 무드를 한층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갈라 디너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하객들의 가장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 냈던 시간은 모두 함께 발렌타인 17년으로 슬란지바를 외친 시간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스코틀랜드 천혜의 바람과 자원, 그리고 맑은 물로 만든 발렌타인에 깊이 깃들어 있는 품격과 낭만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마련된 이 시간에는 하객들은 물론, VIP와 참가 선수들까지도 집중해서 경청하는 풍경을 자아냈다. 특히 대런 클라크 선수는 "시차 적응을 못해서 몹시 지쳐 있던 상황이었는데 오늘 이 자리 덕분에 많이 웃을 수 있어 좋았다."고 말해 모두를 기쁘게 했다.

준비된 일정이 모두 끝나고 디너 타임까지 마무리가 되며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나려 할 때쯤에는 참가 선수들이 요청에 따라 주최측에서 제공한 발렌타인 보틀에 직접 사인을 해주는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세계적인 명품 위스키를 세계적인 골프 플레이어들과 한자리에서 음미할 수 있는 특별한 즐거움에 푹 빠져 있던 하객들은 유명 선수들의 사인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기회 앞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다.

오후 10시가 넘어서까지 진행된 갈라 디너는 흐르는 시간이 전혀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로 발렌타인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발렌타인을 사랑하는 이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이벤트들로 가득 채워졌다. 이날의 자리가 대회를 앞둔 선수들의 긴장을 풀어준 것은 물론, 함께한 모든 이들이 발렌타인의 특별한 매력에 다시 한 번 깊이 빠질 수 있도록 해준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The 5th Champion

명예로운 우승 타이틀을 거머쥔
발렌타인 챔피언십의 5번째 주인공

세계 랭킹 1위의 리 웨스트우드가 발렌타인 챔피언십의 트로피를 들어올린 지 1년이 지났다. 매년 드라마틱한 명승부로 인상적인 피날레를 장식해 온 발렌타인 챔피언십의 다섯 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주인공은 모두의 예상과는 달리 생애 첫 유러피언 투어 우승을 기록한 무명의 베른트 비스베르거였다.

01. 2012 발렌타인 챔피언십 우승 타이틀을 거머쥔 베른트 비스베르거의 경쾌한 티샷
02. 티샷을 날리는 유럽 신예 골퍼 올리버 피셔
03. 국내 팬들에게 열띤 응원을 받은 양용은 선수

01

늘 그랬지만 이번 발렌타인 챔피언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 이유는 대회 사상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들이 대거 참여했기 때문이다. 주로 미국에서 활동을 하는 까닭에 국내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양용은 선수와 배상문 선수, 그리고 한국에 올 때마다 특별히 패션 스타일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이안 폴터, 한국에 첫 방문하여 발렌타인 챔피언십에 최초로 출전하는 전년도 브리티시 오픈 우승자 대런 클라크, 아시아에서 열린 유러피언 투어에서 4번 우승한 아담 스콧, 언제나 존재감이 큰 전년도 발렌타인 챔피언십 준우승자 미구엘 앙헬 히메네즈까지. 한마디로 세계적인 정상급 선수들이 총출동하는 자리였다. 이와 더불어 일각에서는 역대 대회 사상 가장 훌륭한 기록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도 함께 쏟아졌다. 하지만 대회 첫날인 4월 26일부터 이런 기대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초여름 날씨답지 않게 경기가 열린 이천 블랙스톤 골프 클럽에는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블랙스톤 골프 클럽의 10번홀은 올해의 유러피언 투어 중 가장 힘든 홀로 기록되었다. 예상치 못했던 기상 이변 속에서 선수들은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어떻게 하면 우승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아름다운 우승컵을 들어 올릴 수 있을까… 대회 내내 오직 그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또 이번 대회처럼 준비가 잘 된 대회, 또 멋진 선수들이 참가한 대회에서 우승한다는 것은 아주 특별하고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한 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예상을 깨고 발렌타인 챔피언십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주인공은 오스트리아의 베른트 비스베르거였다. 블랙스톤 골프 클럽에서 65타를 기록하며 코스레코드를 깬 그는 결국 끝까지 페이스를 잃지 않고 선방, 발렌타인 챔피언십의 5번째 우승자로 등극하는 동시에 개인의 유러피언 투어 첫 우승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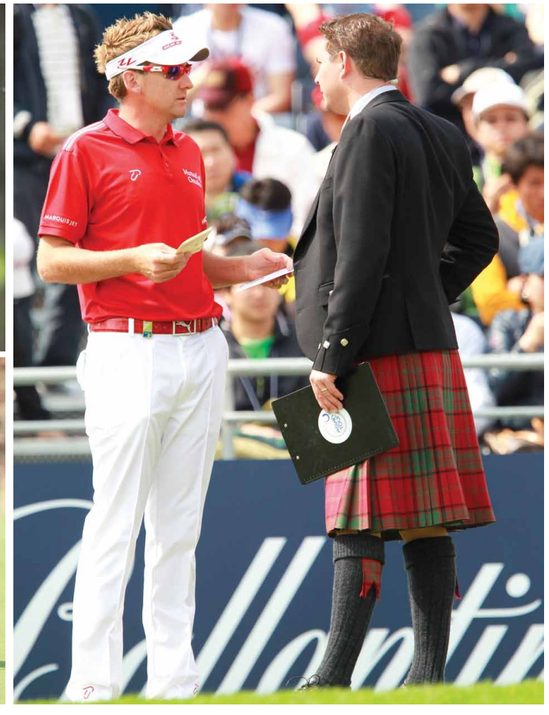
이로써 베른트 비스베르거는 국내 유일의 유러피언 투어(EPGA)로 자리잡은 발렌타인 챔피언십의 다섯 번째 트로피를 품에 안는 것과 동시에 약 5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엄청난 우승 상금의 주인공이 됐다. 그는 "발렌타인 몇 병을 받았는데 집에 돌아가면 다 없어질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파티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 거짓말이겠죠? 우선 부모님과 여자 친구, 그리고 몇몇의 친구들과 비엔나에서 근사한 식사를 할 예정이고 그 후 어떻게 할 지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Share the Moments of
Ballantine's Championship

열정과 환호가 공존하는

결정적 순간을 담다



01

02

03

01. 우승을 확정 짓고 미소를 띠는 베른트 비스베르거
02. 양용은 선수의 벙커샷
03. 2010년 발렌타인 챔피언십 우승자인 마커스 프레이저는 이번 경기에서 공동 3위의 성적을 거뒀다

베른트 비스베르거가 우승하면서 품에 넣게 된 발렌타인 위스키 중에는 '2012 발렌타인 챔피언십 블렌드'가 있다. 발렌타인의 마스터 블렌더인 샌디 히슬롭과 2011년 발렌타인 챔피언십의 우승자인 리 웨스트우드가 특별 제조한 이 위스키는 세상에 단 10병만 존재하며 시중에서는 판매되지 않는 '우승자를 위한 위스키'다. 또 베른트 비스베르거는 이미 2라운드와 3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65타를 치며 데일리 최저타를 기록, 21년산 발렌타인 2병을 받은 바 있다. 65타는 올해 대회 최저타로 3라운드에서 폴 맥긴리, 키라데크 아피반랫과 동타인 기록이며, 4라운드에서는 아담 스콧과 리치 램지도 기록하였다. 지난해 대회에서 브렛 럼포드가 63타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그 당시 프리퍼드 라이(preferred lie)가 적용되며 공식 유러피언 투어 기록으로 인정되지는 않았다.

첫날의 이변과는 달리 둘째 날부터는 날씨도 좋아지고 바람도 알맞게 불면서 블랙스톤 골프 클럽 18번홀에서 무려 36명의 선수가 버디를 기록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를 지켜본 많은 관객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선수들과 함께 기뻐했고, 미구엘 앙헬 히메네즈, 이안 폴터, 양용은, 배상문 등 버디를 기록한 선수들은 본인의 공과 모자를 관객에게 던져 주며 기쁨을 함께 나누는 훈훈한 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2·3라운드에서 7타씩을 줄여 5타차 리드를 안고 최종 라운드에 들어간 베른트 비스베르거는 안정된 경기 내용으로 별다른 위기 없이 우승까지 치달았다. 그는 1라운드 13번홀에서의 더블보기 이후 4라운드 마지막 홀까지 무려 59홀 동안 보기가 없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한편 마지막 홀에서 버디를 기록하면서 베른트 비스베르거에 2타 차이로 뒤진 리치 램지가 2위를 차지했다.

2009년 유럽 투어에 데뷔한 베른트 비스베르거는 이듬해 2부 투어로 내려갔다가 지난해부터 정규 투어로 다시 올라온 선수다. 2부 투어에서는 두 차례 우승 경험이 있지만 정규 투어에서는 이날 생애 첫 우승을 일궈내 한국과 각별한 인연을 맺게 되었다. 스키와 축구의 나라 오스트리아 출신으로는 두 번째 유럽 투어 대회 챔피언으로도 기록됐다.

베른트 비스베르거는 이번 대회를 통해 블랙스톤 골프 클럽이야말로 자신이 세계에서 제일 좋아하는 골프 클럽이 되었다고 말해 관객들과 관계자들을 더욱 기쁘게 했다. 그는 우승 소감에 대해 "이번 발렌타인 챔피언십을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판타스틱!'입니다. 경기도 잘 풀렸고 컨디션도 좋았어요. 경기 내내 4타 차이의 여유를 가지면서 진행한 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특히 마지막 18번홀에서의 버디 퍼트가 결국 이번 대회를 멋지게 잘 마무리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 어떤 대회보다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훌륭한 대회였다는 평가를 얻은 이번 대회의 최종 순위를 살펴보면, 베른트 비스베르거에 이어 리치 램지가 2위를 기록했고 3위는 빅토르 뒤뷔송과 마커스 프레이저가 공동으로 차지했다. 앤서니 월과 미구엘 앙헬 히메네즈가 그 뒤를 이었으며 아담 스콧은 마지막 날 7언더파 65타를 몰아쳐 이름값을 하며 공동 12위로 마감했다. 양용은은 이안 폴터와 함께 공동 15위에, 배상문은 20위에 만족해야 했다.

2012 Ballantine's Championship Blend

오직 우승자만을 위한 아주 특별한 위스키

2012 발렌타인 챔피언십 블렌드 41년

발렌타인 챔피언십을 기념하기 위해 전년도 우승자와 발렌타인 마스터 블렌더가 합작한 올해의 '발렌타인 챔피언십 블렌드'가 공개되었다. 전 세계에 단 10병만 한정 생산된 블렌드 중 한 병은 전통에 따라 우승자의 품에 안겼다. 다른 한 병은 발렌타인 챔피언십 기간 동안 경매를 통해 그 주인공을 가렸으며, 수익금 전액은 사회 단체에 기부되었다.

'발렌타인 챔피언십 블렌드'는 발렌타인과 골프의 장기적인 관계를 지속하면서 두 분야의 열정과 전문성을 공유하기 위한 상징적인 제품으로, 발렌타인은 매년 새로운 챔피언십 블렌드를 공개하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선보이는 '2012 발렌타인 챔피언십 블렌드'는 작년도 우승자 '리 웨스트우드'와 마스터 블렌더 '샌디 히슬롭'의 협업으로 탄생했다. 이번 블렌드는 41년 이상의 진귀한 원액이 사용된 최상의 제품으로, 발렌타인 5대 마스터 블렌더인 샌디 히슬롭은 이 제품을 위해 최고 품질의 곡물과 몰트 위스키를 선정하여 블렌딩했다. 또한 고급스러움을 강조한 가죽과 황금밴드가 보틀을 감싸고 있으며 이 블렌드를 협업한 전년도 발렌타인 챔피언십 우승자 리 웨스트우드와 샌디 히슬롭의 사인이 황금 명판의 양쪽을 장식하고 있다. 케이스는 우드와 가죽의 고급스러운 조화가 돋보이며 골프와 블렌드의 진귀함을 나타내고 있다.

발렌타인 챔피언십 블렌드는 매년 발렌타인 챔피언십 우승자에게 한 병이 부상으로 수여되며, 한 병은 챔피언십 기간 중 경매에 부쳐 그 수익금을 기부하는 전통을 이어 가고 있다. '2012 발렌타인 챔피언십 블렌드'는 전 세계 통틀어 10병만 한정 생산되었으며, 그 첫 번째 보틀이 올해의 우승자 베른트 비스베르거에게 전달되었다.

페르노리카 코리아, 2012 발렌타인 챔피언십 블렌드 선보여

페르노리카 코리아가 지난 4월 15일 중구 소공동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국내 최대 규모이자, 최초의 유러피언 투어인 '2012 발렌타인 챔피언십' 개최를 앞두고 '2012 발렌타인 챔피언십 블렌드 41년'을 공개했다.

Unique Experience with Star Players

세계적인 프로 골퍼와 함께한 특별한 시간

대런 클라크의 골프 클래스

2011년 브리티시 오픈 우승자인 대런 클라크 선수는 발렌타인 챔피언십 우승자 트로피에 발렌타인 챔피언십 블렌드를 따를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한국을 찾았다. 바람이 많이 불었던 첫 라운드를 마치고 시차 적응이 아직 안 되어 많이 피곤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날씨에 익숙하다"며 환한 얼굴로 골프 클래스를 시작했다. 이날은 대런 클라크 선수 외에도 양용은, 아담 스콧, 이안 폴터 선수 등 스타 플레이어들이 골프 클래스를 진행해 2012 발렌타인 챔피언십을 더욱 특별한 시간으로 빛내 주었다.

Short Game Lesson (쇼트 게임 레슨)

Point 1 >> 많은 아마추어 골퍼들이 쇼트 게임에서 실수하는 이유는 손목을 많이 쓰기 때문이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몸의 무게 중심을 왼쪽 발에 놓아야 한다.

Point 2 >> 공은 치는 것이 아니라 어깨 회전을 이용해 스윙을 하는 것이다. 정확하고 힘차게 공을 보내려면 어깨가 다운 스윙 때 회전을 해야만 팔이 자연스럽게 내려와 가능해진다.

Point 3 >> 골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중력이다. 샷을 치기 전에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타겟에만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Bunker Shot (벙커샷 레슨)

Point 1 >> 몸의 무게 중심을 왼쪽 발에 놓아야 한다.

Point 2 >> 공의 2~3인치 뒤쪽의 모래를 내리쳐라.

이날 대런 클라크는 클래스가 끝난 후 3명에게 특별히 개인적인 원 포인트 레슨을 해주었다. 이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기쁨이 된 이날, 대런 클라크는 레슨 내내 챔피언다운 매너와 끊임없는 미소를 보여주어 참가한 모든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클래스 참여 3인의 인터뷰

이창희 >> "왜! 정말 좋았어요. 그동안 다른 레슨 프로 분들께도 교육을 받아 봤지만 직접 현장에서 이렇게 레슨을 받아 보니까 또 기분이 다르네요. 내용상으로도 차이가 나지만 무엇보다도 세계적인 선수가 직접 자세를 교정해 주고 조언을 해주니 느낌이 한번에 전해져 오는 거 있죠.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연습하고 실천하면 더욱 멋진 골프 스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용진 >> "무엇보다도 대런 클라크가 굉장히 친절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골프 레슨을 받을 때의 느낌은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느낌은 확실히 다르네요. 아마도 그 이유는 그가 보여준 친절함과 자상함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역시 그는 챔피언다운 매너와 이성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하긴, 챔피언 아무나 하나요?"

김수진 >> "이번 레슨은 제 인생에 있어 다시 없을 소중한 경험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제 문제에 대해 아주 쉽고도 명확하게 지적하고 그 해결점을 알려주니까 뭔가가 갑자기 뻥 뚫린 그런 느낌이에요. 아, 오늘 이후로 전 골프에 더욱 자신감이 붙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라운딩엔 싱글 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01. 친절하게 골프 클래스를 진행한 대런 클라크 선수와의 기념 촬영

02. 편안한 분위기에서 골프 클래스를 진행해 준 양용은 선수와 즐거운 추억을 나눈 독자들

양용은의 골프 클래스

'메이저 챔프' 양용은 선수도 노블레스 독자 10명을 대상으로 하는 골프 클래스에 참여했다. 아무래도 한국 선수라 많은 독자들이 더 편하게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골프를 배우는 것보다 자리를 함께하는 것에 대해 영광으로 생각하며 많은 질문을 던지고 개인 레슨을 받고 싶어하는 독자들이 많았다. 이 중 마지막 18번홀까지 양용은 선수를 응원했던 안상욱, 최지희 부부가 양용은 선수에게 직접 원 포인트 레슨을 받는 특혜를 누렸다.

Short Game Lesson (쇼트 게임 레슨)

쇼트 게임에서 중요한 것은 3가지다. 거리, 방향 그리고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그것이다.

Point 1 >> 스탠스를 넓게 서면 안되고 좁게 서라

Point 2 >> 백스윙이 너무 크거나 작으면 자연스러운 스윙이 안 나온다.

Point 3 >> 쇼트 게임엔 정확한 거리 기준이 있어야 한다.

클래스 참여 3인의 인터뷰

안상욱 >> "일단 최고의 프로 선수에게 레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발렌타인에도 감사드립니다. 평소 제가 쇼트 게임에 약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스킬을 배웠기 때문에 앞으로 빨리 실천해 보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큽니다. 값진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지희 >> "저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비기너인데요. 이렇게 양용은 프로님한테 배우게 되어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이곳에 올 때도 기분이 많이 좋았는데 마지막까지 그 기분을 안고 집에 돌아가게 될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발렌타인에도 감사드립니다."

이수민 >> "오늘 레슨 중에 공을 지나가게 치라고 하신 말씀이 가장 인상에 남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원래 어프로치를 잘하는 편인데 여기서 막상 하라고 하니깐 더 못하겠네요. 양용은 프로님이 앞에 계셔서 그랬나 봐요."

Great Players Always Leave an Impression

필드를 뜨겁게 달구었던 그들이 남긴 인상

우승을 향해 그린 위에서 최선을 다하는 열정적인 모습과 그 어떤 순간 속에서도 깊은 인상을 남기는 플레이로 감동을 선사하는 선수들을 우리는 진정한 프로라 부른다. 이번 발렌타인 챔피언십에 참가하여 남들과는 다른 진정한 캐릭터가 어떤 것인지 직접 보여준 그들이 남긴 인상과 메시지.

베른트 비스베르거(Bernd Wiesberger)

_2012 발렌타인 챔피언십 우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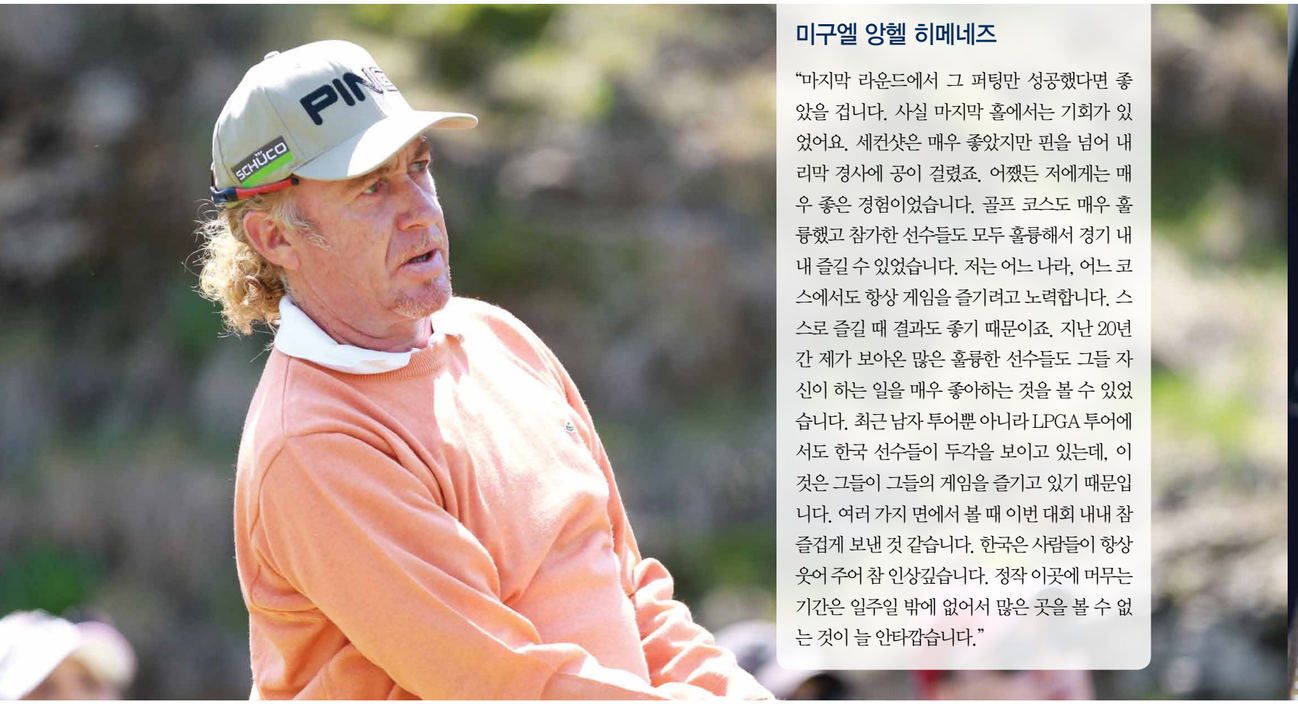
"모든 선수들이 그러하듯 저도 우승을 꿈꾸며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꼭 우승 트로피를 손에 쥐고 싶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져서 매우 기쁩니다. 발렌타인 챔피언십처럼 우수한 선수들이 많이 출전한 대회에서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실력을 발휘해야만 하는데, 저에게 이번 주는 그런 한 주였나 봅니다. 또한 이번 대회 우승은 저의 첫 유러피언 투어 우승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뜻깊고, 무엇보다 앞으로의 제 커리어에 있어서 큰 도약의 기회가 될 것 같아 더욱 기쁩니다. 이 우승이 마지막이지 않기를 바라며,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양용은

"이번 경기를 위해 미국에서 일찍 들어왔기 때문에 시차 적응도 잘 되었고 컨디션 조절도 잘 되어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싶었는데 아쉽습니다. 한국에도 KPGA 투어 대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러피언 투어와 같이 하는 이 대회는 유럽에서도 좋은 선수들이 많이 참가하고, 굉장히 잘 하는 선수들이 많이 오는 대회입니다. 상금 규모도 크고 시즌 초반에 하는 대회이기 때문이죠. 이런 발렌타인 챔피언십이 한국에서 열린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한국 선수들에게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회라고 생각하고, 더욱 많은 한국 선수들이 참여해서 좋은 성적을 내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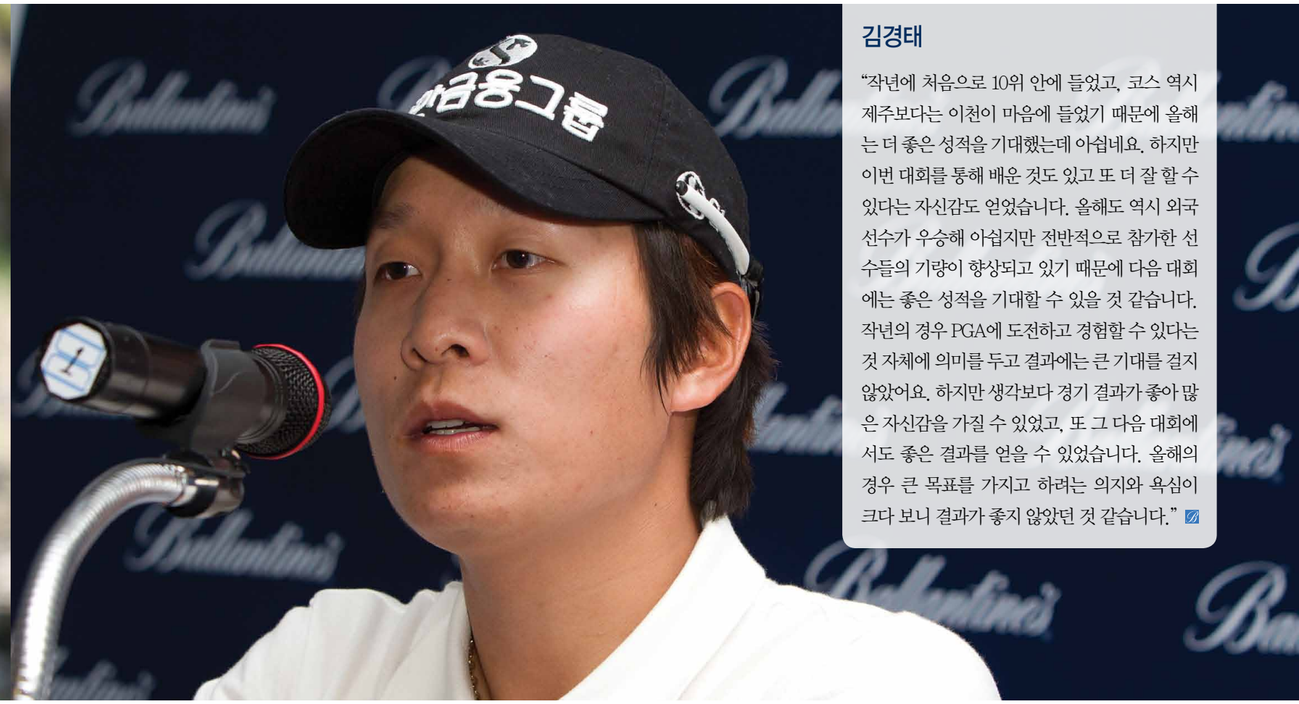
아담 스콧

"이번 대회가 열린 블랙스톤 골프 클럽은 몇몇 그린이 까다로울 것 같아 대회가 시작되기 전 미리 필드를 점검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를 했죠. 그 덕분에 편안한 경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3라운드까지 부진했지만 마지막 4라운드에서는 힘을 들이긴 했습니다. 저는 특히 아시아에서 경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다음에 제가 우승한 국가에 한국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기에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이 대회에서 우승을 한다면 큰 영광이겠죠. 저도 다시 도전해서 꼭 우승 기회를 잡아보고 싶습니다."



미구엘 앙헬 히메네즈

"마지막 라운드에서 그 퍼팅만 성공했다면 좋았을 겁니다. 사실 마지막 홀에서는 기회가 있었어요. 세컨샷은 매우 좋았지만 핀을 넘어 내리막 경사에 공이 걸렸죠. 어쨌든 저에게는 매우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골프 코스도 매우 훌륭했고 참가한 선수들도 모두 훌륭해서 경기 내내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나라, 어느 코스에서도 항상 게임을 즐기려고 노력합니다. 스스로 즐길 때 결과도 좋기 때문이죠. 지난 20년간 제가 보아온 많은 훌륭한 선수들도 그들 자신이 하는 일을 매우 좋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남자 투어뿐 아니라 LPGA 투어에서도 한국 선수들이 두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게임을 즐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이번 대회 내내 참 즐겁게 보낸 것 같습니다. 한국은 사람들이 항상 웃어 주어 참 인상깊습니다. 정작 이곳에 머무는 기간은 일주일 밖에 없어서 많은 곳을 볼 수 없는 것이 늘 안타깝습니다."



김경태

"작년에 처음으로 10위 안에 들었고, 코스 역시 제주보다는 이천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올해는 더 좋은 성적을 기대했는데 아쉽네요. 하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 배운 것도 있고 또 더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올해도 역시 외국 선수가 우승해 아쉽지만 전반적으로 참가한 선수들의 기량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대회에는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의 경우 PGA에 도전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결과에는 큰 기대를 걸지 않았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경기 결과가 좋아 많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고, 또 그 다음 대회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의 경우 큰 목표를 가지고 하려는 의지와 욕심이 크다 보니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Quaich

Ballantine's Championship Trophy

발렌타인 챔피언십의 트로피 '퀘익(Quaich)'은 골프와 발렌타인의 시대적 가치를 동시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 둘이 탄생한 스코틀랜드를 상징하고 있다. 퀘익은 원래 고대 스코틀랜드에서 전해 내려온 두 개의 손잡이가 달린 나무 술잔이다. 전통적으로 스코틀랜드의 부족장들은 평화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퀘익에 술을 따라 함께 마시곤 했는데 발렌타인 챔피언십의 트로피는 바로 이 스코틀랜드의 전통적인 술잔인 퀘익을 본떠 만들어진 것이다. 이 트로피는 영국 축구 챔피언십 리그와 중국 골프 투어 상금왕 트로피, AFC 아시안컵의 트로피를 만든 영국 출신의 유명한 트로피 제작자 토마스 라이트가 92.5% 순도의 은으로 손수 제작했다. 이번 발렌타인 챔피언십에 참가한 대런 클라크는 우승을 향한 포부를 "이 잔에 챔피언십 블렌드 위스키를 따라 마시고 싶다"는 말로 표현하기도 했다.

Leave a Remarkable Impression

다양한 공간에서 이어지는
발렌타인 챔피언십의 스토리와 감동의 여정

지난 5년 동안 국내에서 개최되면서 한국 골프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발렌타인 챔피언십.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큰 규모로 개최된 만큼 대회를 앞두고 다양한 마케팅 활동이 펼쳐졌다. 또 대회의 감동을 다시금 느낄 수 있도록 되짚어 보는 일반인 대상 경기가 열리는 등, 2012 발렌타인 챔피언십을 다양한 각도에서 즐기고 체험함으로써 더 많은 이들이 발렌타인 챔피언십과 그 정신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The Great Tournament Lingers on our minds

대회 현장의 감동과 여운을 고스란히 전하다
고객 초청 골프대회

2008년을 시작으로 매해 국제적인 규모로 치러지며 명성을 쌓고 있는 발렌타인 챔피언십이 올해도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발렌타인 챔피언십에 참가한 선수들의 열정과 현장의 온기가 채 사라지기도 전인 지난 4월 30일, 챔피언십 경기가 열린 세계적인 수준의 골프 클럽 '블랙스톤 GC'에서는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객 초청 골프대회가 개최되었다.

4일간의 발렌타인 챔피언십에 이어, 바로 전날까지 치러졌던 선수들의 라운딩 코스와 동일한 '블랙스톤 GC' 북서코스에서 진행된 일반인 대상의 고객 초청 골프대회는 참가자 전원의 동시 티오프(샷 건)로 시작되었다.

이번 경기는 4인 1조, 총 20개 조로 구성되어 '신페리오' 방식으로 점수가 산출되었다. '신페리오' 방식은 경기 시작 전 12개의 홀을 랜덤으로 선택하여, 18홀을 라운딩하는 동안 이 홀에서 친 타수를 핸디캡으로 정하게 된다. 이 12홀의 합계가 48파가 되어야 하며, 경기 종료 후 참가자가 스코어 카드를 제출하면 성적 집계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핸디캡 산출'은 산출된 스코어에서 18홀을 기준으로 정규 72파를 빼 산출된 숫자의 80%가 본 경기의 핸디캡이 되며, 성적은 지정된 12개 홀의 스코어를 합하고 거기에 1.5를 곱하여 18홀 기준 성적을 집계한다.

발렌타인 챔피언십 출전 선수들이 라운딩했던 코스를 그대로 경험해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였던 만큼, 참가했던 80여 명의 참가자들은 18개 각각의 홀을 맞이할 때마다 상기된 모습으로 경기에 임하는 모습이었다. 전날까지의 경기를 연상케 할 정도로 팽팽한 긴장감 속에 경기가 마무리되고, 이후에는 스페셜한 만찬이 이어졌다.

각 테이블에는 발렌타인 17이 세팅되었고, 특히 1번홀과 10번홀에서 촬영한 참가자들의 조별 혹은 개인 사진이 함께 전시되어 주최 측의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 본격적으로 진행된 만찬 시간에는 다양하고 푸짐한 상품이 시상되었다. 메달리스트와 우승자에게는 테일러메이드 골프 풀세트가, 준우승자와 3위에게는 각각 테일러메이드 아이언 세트와 테일러메이드 우드가 주어졌다. 이외에도 니어리스트, 롱기스트(남/여), leave an impression상 시상과 다양한 상품 증정으로 수상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만찬장 내부에는 발렌타인만의 그윽한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고, 참가자들은 이날의 경기를 되뇌며 이야기를 나누느라 웃음꽃이 여기저기서 피는 모습이었다. 특별했던 고객 초청 골프대회는 막을 내렸지만, 안전한 귀가를 위한 대리 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참가자들을 향한 배려가 마지막 감동을 이어갔다.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된 발렌타인과 골프의 끈끈한 관계로 탄생한 '발렌타인 챔피언십'은 고객들과의 소통과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한 단계씩 발전을 거듭하며 국제적인 골프대회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Meet the Winner's Trophy Before the Championship

우승자의 트로피에 담긴 감동을 미리 만나다

발렌타인 챔피언십 트로피 투어

페르노리카 코리아는 국내 유일의 유러피언 투어인 '2012 발렌타인 챔피언십' 개최를 기념하며 대회가 열리기 전인 4월 6일부터 약 2주 동안 '발렌타인 챔피언십 트로피 투어'를 진행했다. 발렌타인 챔피언십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우승 트로피는 전국의 클럽하우스에 순회 전시되며 역사와 전통이 담긴 고귀한 자태를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냈다.

발렌타인은 매년 발렌타인 챔피언십 대회를 비롯해 골프와의 긴밀하고도 지속적인 마케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미 성공적으로 자리잡은 발렌타인 챔피언십의 명성만큼 우승 트로피 역시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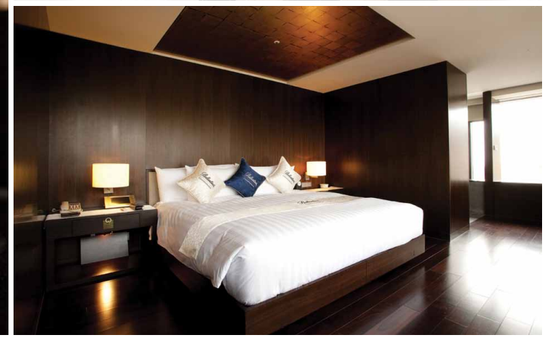
발렌타인 챔피언십의 트로피는 스코틀랜드에서 탄생한 발렌타인과 골프의 시대적 가치를 동시에 담고 있으며, 발렌타인의 오랜 전통을 상징하는 동시에 발렌타인 챔피언십의 우승자에게 헌사 되는 최고의 선물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대회가 개최되기 전 우승자의 트로피를 미리 만나볼 수 있다는 것은 감상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는 큰 기회다.

'2012 발렌타인 챔피언십' 우승 트로피는 대회 개최 2주 전부터 가평 프리스틴 밸리를 시작으로, 광릉 포레스트 컨트리클럽, 한양 컨트리클럽, 프라자 컨트리클럽, 스카이72 골프 클럽을 거쳐 대회 개최지인 이천 블랙스톤 GC를 순회하며 전시되었다. 각 클럽하우스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트로피 앞에서 직접 기념 촬영을 할 수 있는 포토 존이 운영되었고, 발렌타인 칵테일을 시음해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었다. 이와 함께 스크래치 카드와 추첨 등을 통해 발렌타인 골프 리미티드 에디션, 발렌타인 챔피언십 갤러리 티켓 교환권, 갈라 디너 티켓, 골프 시즌권 등 푸짐하고 다양한 경품을 증정하기도 했다.

또한 트로피 투어가 열리는 기간 동안 골프 클럽에서 발렌타인 17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챔피언십 기간 동안 18번홀 VIP 마퀴텐트인 홀인원 클럽에 입장이 가능한 VIP 패스를 비롯하여 발렌타인 골프 리미티드 에디션, 챔피언십 대회 모자, 셔츠 등 특별한 경품을 전했다.

페르노리카 코리아 장 마누엘 스프리에 대표이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토너먼트인 발렌타인 챔피언십 개최를 통해 열정, 인내, 전문성 등 발렌타인 위스키의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가치를 매년 꾸준히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며 "이번 트로피 투어는 역사적인 발렌타인 챔피언십의 우승 트로피를 가까이에서 직접 보고 발렌타인 위스키의 정통성과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각 클럽하우스에서 트로피 투어를 통해 모습을 드러내며 큰 주목을 받았던 2012 발렌타인 챔피언십의 우승 트로피는 마침내 이번 대회 우승자인 오스트리아 출신 베른트 비스베르거에게 돌아갔다. 대회 기간 내내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플레이를 선보이며 다섯 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베른트 비스베르거는 우승 트로피는 물론, 엄청난 상금과 발렌타인 챔피언십 우승자에게만 특별히 선사되는 2012 챔피언십 블렌드를 함께 품에 안는 영광을 누렸다. 2012 발렌타인 챔피언십이 개최되기 전 진행된 이번 트로피 투어는 우승자만의 전유물인 우승 트로피를 일반인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과 동시에, 사전 전시를 통해 관람했던 모든 이들의 축하의 마음이 우승자에게도 그대로 전해진다는 의미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감동을 머금은 우승 트로피가 되기에 충분했다.



Special Concept Room for Golf Mania

특별한 공간 속에서 발렌타인 챔피언십을 마주하다

발렌타인 챔피언십 컨셉룸

No.1 프리미엄 스카치 위스키 발렌타인이 서울 남산에 위치한 럭셔리 어반 리조트,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Banyan Tree Club & Spa Seoul)과 함께 발렌타인 위스키와 골프 팬을 위한 특별한 공간을 오픈했다. 이번 컨셉룸은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디럭스 스위트에 '2012 발렌타인 챔피언십'을 사전에 느껴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꾸며졌다.

2012 발렌타인 챔피언십 개최를 3주 가량 앞둔 지난 4월 2일, 발렌타인은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에서 스코틀랜드의 전통적인 감성이 담긴 '발렌타인과 골프, 그리고 2012 발렌타인 챔피언십'을 컨셉으로 하는 스페셜 테마룸을 선보였다.

특히 남산의 경관이 한눈에 들여다보이는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과 발렌타인의 분위기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컨셉룸을 찾은 이들에게 도심 속 여유로운 휴식과 함께 발렌타인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선물했다.

페르노리카 코리아는 지난해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 런칭을 기념하며 캘리그래피스트 이상현 작가와 아티스트 3인과의 콜라보레이션이 반영된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 컨셉룸'을 선보인 바 있다. 획기적이고 새로운 예술적 시도가 '발렌타인' 브랜드와 만나 긍정적 결합을 이뤄낸 만큼 이번에 공개된 컨셉룸 또한 기대감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발렌타인만의 정통, 클래식한 느낌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모던함을 담은 내부의 인테리어는 한눈에도 '발렌타인 챔피언십'이라는 주제가 돋보이는 공간이었다. 그 어느 때보다 쟁쟁한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이 참가한 2012 발렌타인 챔피언십이었던 만큼 출전하는 선수들의 사진이 룸 내부를 가득 메웠고, 그동안 개최된 발렌타인 챔피언십의 감동의 순간을 투숙객들이 느낄 수 있도록 배치한 데코레이션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최상의 룸에서 최고의 발렌타인 위스키 한 잔과 함께 여유롭게 미니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주목을 끌었다.

원목 인테리어와 짙은 브라운, 아이보리 컬러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럭셔리한 내부 공간은 절제되면서도 감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적재적소에 배치된 다양한 우드 프레임 액자와 연산별로 진열된 발렌타인 위스키는 컨셉룸에 세련미를 더하며, 발렌타인 챔피언십과 발렌타인의 역사를 룸 여기저기에서 느낄 수 있게끔 구성되었다. 또한 침구류 및 액세서리 등 세세한 부분까지 발렌타인만의 고유 브랜드 이미지를 표현하면서 완성도를 한껏 높였다.

한편 컨셉룸에 투숙하는 모든 고객에게는 '발렌타인 챔피언십 골프 리미티드 에디션'과 '2012 발렌타인 챔피언십'을 관람할 수 있는 갤러리 티켓이 제공되었다. 이번 대회를 기념하여 출시된 '발렌타인 챔피언십 골프 리미티드 에디션'에는 발렌타인 17과 골프 티, 골프 액세서리 수납용 포켓이 포함되며, 고급스러운 소재로 이루어진 액세서리 백과 함께 구성되어 소장 가치를 더한 제품. 특히 이번 리미티드 에디션에 포함된 라운딩 백은 골프볼과 골프 마커 등 다양한 골프 액세서리를 담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기능성 포켓 내장으로 품격과 실용성을 함께 갖춰, 골프 마니아들의 니즈를 고려한 제품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발렌타인은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투숙객 중 1명을 추첨하여, 대회에 참가하는 프로 선수 1인과 아마추어 선수 2~3인이 함께 플레이를 즐기는 '프로암' 경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2012 발렌타인 챔피언십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다양한 리미티드 기념품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혜택 또한 제공했다.

—

Ballantine's Championship Bar in OMEGA Chungdam Boutique

변하지 않는 가치와 헤리티지를 공유하다

발렌타인 챔피언십 바

지난 4월 2일부터 30일까지 오메가 청담 부티크에서는 흥미로운 프로모션이 진행되었다. 바로 매장 내부에 발렌타인 챔피언십 바가 자리잡은 것.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2012 발렌타인 챔피언십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발렌타인 위스키를 테이스팅 해볼 수 있는 기회를 함께 제공한 이곳에는 특히 올해 우승자에게 선사되는 2012 발렌타인 챔피언십 블렌드와 역대 챔피언십 블렌드도 함께 전시되어 특별함을 더했다.

발렌타인 챔피언십 바는 전체 2개의 층으로 구성된 오메가 청담 부티크의 2층에 숍 인 숍 형태로 자리하고 있다. 89㎡ 규모의 2층 공간은 전체적으로 뮤지엄 풍의 전시 공간으로 디자인되어 있으며, 천연 오크 우드 소재로 제작된 발렌타인 챔피언십 바와 화이트 로고는 오메가 청담 부티크 2층의 럭셔리한 분위기와도 상응한다. 약 한 달 간의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마련된 공간이지만, 오메가 제품이 진열된 공간과 발렌타인 바가 잘 어우러진 토탈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공간이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LED 간접조명을 통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진열 선반의 배경 컬러는 전시된 발렌타인 위스키의 오묘한 매력을 부각시킨다. 또한 오메가 로고가 프린팅 된 골프볼과 오메가 시계를 함께 전시하면서 두 브랜드의 조화를 자연스럽게 표현한 디스플레이 역시 돋보인다.

바 뒤로 구성된 선반에는 지난 챔피언십 블렌드가 진열되어 있으며 올해 발렌타인 챔피언십의 우승자에게 특별히 선사되는 '2012 발렌타인 챔피언십 블렌드'는 투명한 쇼케이스 안에 전시되어 그 고귀한 자태를 빛냈다. 작년 발렌타인 챔피언십 우승자 '리 웨스트우드'와 발렌타인 5대 마스터 블렌더인 '샌디 히슬롭'의 협업으로 탄생된 이번 2012 발렌타인 챔피언십 블렌드는 41년 이상 숙성된 희소성 높은 최고의 원액들만을 블렌딩하여 제작된 것이다.

행사 기간 내 발렌타인 챔피언십 바를 방문한 고객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발렌타인 17을 테이스팅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위스키 테이스팅을 위해 꼭 필요한 노징 글라스와 안락한 소파가 놓여진 공간은 편안하게 발렌타인을 음미하고 그 변하지 않는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돕기에 충분했으며, 지인들과 삼삼오오 모여 발렌타인을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도 손색이 없었다. 또 바 옆 벽면에 설치된 화면을 통해 보여지는 영상은 정교한 기술, 장인정신과 긴 역사를 대변하는 발렌타인과 오메가 두 브랜드의 헤리티지를 드러내고 있었다.

Another True Character of
Ballantine's Championship Blend

2012 발렌타인 챔피언십 블렌드의 또 다른 주인공 (주)현대주류 노종만 회장

발렌타인과 발렌타인 챔피언십이
지켜오고 있는 최고의 가치를 담아 만들어진
올해의 발렌타인 챔피언십 블렌드는
전 세계 단 10병만 생산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진귀한 빛을 발한다.
발렌타인 챔피언십 우승자에게는
이 진귀한 보틀 중 한 병이 선사되었으며,
경매를 통해 또 한 명의 주인공을 찾았다.
수익금 전액이 소중한 곳에 전달된다는
의미를 알고 경매에 참가했다는
2012 발렌타인 챔피언십 블렌드의
주인공을 만났다.

2012 발렌타인 챔피언십 블렌드를 소장하게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우선 굉장히 기쁩니다.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발렌타인 챔피언십 블렌드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소장할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매에 참가했는데, 참가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지? 국내 최고이자 세계적인 규모의 골프 대회인 발렌타인 챔피언십이 매년 국내에서 개최된다는 것에 골프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마스터 블렌더와 전년도 우승자의 협업으로 탄생된 챔피언십 블렌드에도 늘 관심을 두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최고의 위스키를 갖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챔피언십 블렌드의 경매를 통한 수익금 전액을 매년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기부하는 발렌타인의 뜻깊은 전통을 알게 되어 경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의 수익금도 한국에서 받은 사랑을 사회에 조금이나마 환원하고자 하는 발렌타인의 좋은 취지를 담아 소중한 곳에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골프에도 관심이 많다고 하셨는데, 올해 발렌타인 챔피언십도 관람하셨는지? 골프는 오랫동안 해왔고 좋아하는 스포츠 중의 하나입니다. 올해로 발렌타인 챔피언십이 5회째를 맞이했는데, 매년 빠짐없이 현장에서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세계적인 프로 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회인 만큼 그들의 경기 모습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는 것 또한 소중한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기 전 개최되는 프로암 대회에도 세 번이나 참가했는데, 2011 한국프로골프 대상에서 '발렌타인 대상'을 수상한 홍순상 선수와 필드 위에서 경쟁할 수 있었던 경험은 개인적인 골프 실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프로와 아마추어의 실력 차를 느끼긴 했지만 남자답고 매너 좋은 홍순상 선수의 곁에서 좋은 플레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직업적으로 위스키를 비롯해 다양한 주류를 경험할 기회가 많을텐데 그 중 발렌타인 위스키만이 가지는 매력은? 발렌타인만의 매력이라면 무엇보다 '맛'에 있겠죠. 일전에 있었던 재미있는 일화가 생각나네요. 국내에 다양한 위스키가 소개될 무렵, 바에서 여러 가지 위스키를 각각 마크와 표기 없이 따른 뒤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때 많은 위스키 애호가들이 발렌타인 위스키를 한 번에 찾아냈어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발렌타인만의 고유의 향과 맛 자체가 다른 위스키와의 가장 큰 차별점이 아닐까요.

평소 발렌타인의 여러 블렌드 중 가장 즐기는 연산이 있다면? 발렌타인 17년을 즐겨 마십니다. 17년 이상 숙성된 위스키는 향을 찾으면서 마셨을 때 위스키의 진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발렌타인 40년도 최근 국내 런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테이스팅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시음해 보고 싶네요.

위스키를 완벽하게 즐길 수 있는 본인만의 특별한 테이스팅 방법이나 노하우가 있다면?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서는 폭탄주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위스키를 마시고 있는데, 저는 좋은 술을 왜 그렇게 마시는가 하는 의문이 가끔 듭니다. 좋은 술이라면 당연히 좋은 방법으로 마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언더락으로 마실 때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테이스팅 글라스를 통해 향을 음미하며 위스키 본연의 맛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발렌타인 챔피언십 블렌드를 소장만 할 예정인지? 개봉한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개인적으로 '좋은 술'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다양한 리미티드 에디션을 비롯한 기념주를 집에 소장하고 있습니다. 대략 300병 정도 되지만, 단순히 소장만 할 계획으로 수집한 것은 아니에요. 좋은 날, 좋은 기회가 있다면 맛봐야겠죠? 기념이 되는 날이라면 환갑, 칠순이 될 수도 있고요. 최고의 순간, 최고의 위스키 '발렌타인 챔피언십 블렌드'가 함께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죠.

본인이 생각하는 발렌타인 챔피언십 블렌드의 가치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세계 최고 규모의 골프대회인 발렌타인 챔피언십과 최고의 위스키 발렌타인이 만나 탄생한 발렌타인 챔피언십 블렌드인 만큼, '최고의 가치를 담은 위스키'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Explore Ballantine's Inno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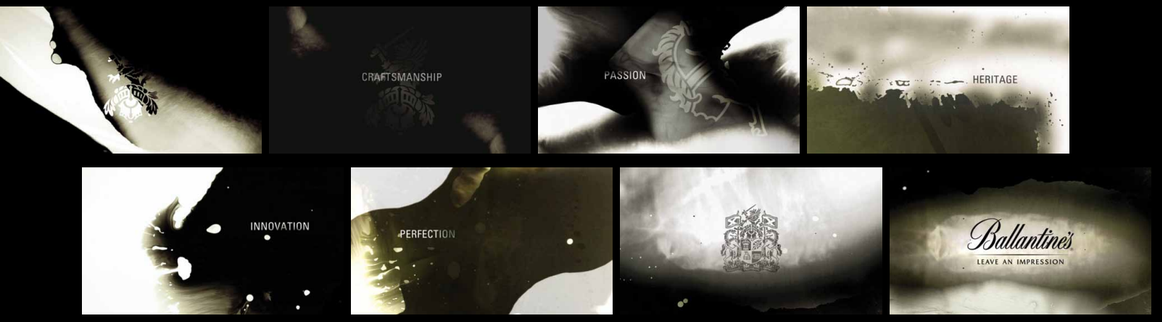
처음 세상에 선보인 이후로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어오는
가치와 시대를 앞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혁신의 공존.
발렌타인의 위스키 하나하나가 '아트 오브 블렌딩'을 실현하는
명작으로 일컬어지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Innovation

03

Ballantine's®
BLENDED SCOTCH WHISKY
AGED 40 YEARS
Amicus Humani Generis

WHEN THE TIME IS RIGHT



BALLANTINE'S CREST

발렌타인 40년을 통해 재조명된 발렌타인 고유의 문장

발렌타인의 역사성, 장인정신, 혁신성을 대변하는 문장(crest)은 1938년 스코틀랜드 왕립 문장원으로부터 수여 받은 영광의 상징으로 현재까지 발렌타인 위스키의 모든 라벨에 표시되어 있다. 특히 이번에 출시된 발렌타인 40년에는 세계적인 세공 장인, 리차드 폭스의 손길이 닿아 더욱 현대적으로 재탄생된 문장이 새겨졌다.

새롭게 재해석된 발렌타인의 문장을 위한 특별한 영상 작품이 국내에서 만들어졌다. 송주명 미디어 파사드 작가는 발렌타인 40년이 처음 공개되는 자리에서 발렌타인의 문장과 문장을 이루는 각각의 요소들을 모던한 느낌으로 재조명하는 의미 있는 영상 작품을 선보였다.

깃발 _스카치 위스키의 본고장인 스코틀랜드의 국기로, 스코틀랜드를 대표하는 명품과 영예의 상징이다. 이 깃발은 발렌타인이 스코틀랜드의 국기를 라벨에 표시할 만큼 그 나라의 전통과 품격, 그리고 장인정신을 이어가고 있음과 동시에 한 나라를 대표하는 브랜드로서의 품질과 자부심을 담고 있다.

그리핀 _두 개의 국기 중앙에 위치한 그리핀(Griffin)은 독수리의 머리와 날개, 그리고 사자의 몸을 가지고 있는 영물로 숨은 보물을 지킨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는 발렌타인의 고귀함을 상징한다.

방패 _중앙의 방패에는 위스키가 탄생하는 데 꼭 필요한 네 가지 핵심 구성 요소인 물, 보리, 증류기와 오크통이 그려져 있다. 이는 최상의 원료와 제조 과정으로 고품질 위스키를 생산하겠다는 발렌타인 가문의 의지를 담고 있다.

유니콘 _방패 좌우에는 왕가의 문장에만 사용될 수 있는 유니콘이 새겨져 있는데, 유니콘의 뿔은 기적과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설이 있다.

휘장 _라틴어로 'Amicus Humani Generis'라는 모토는 '모든 인류의 친구(A Friend To All Mankind)'라는 뜻으로 해석되며, 발렌타인이 스코틀랜드의 전통과 품격을 바탕으로 전 세계인에게 친근하게 다가간다는 의미다.

Ultimate Aspiration Realised

조지 발렌타인의 200여 년 열망의 실현 '발렌타인 40년'

발렌타인 40년은 샌디 히슬롭과 리차드 폭스,
블렌디드 위스키와 은 세공이라는 양 분야를 대표하는
최고 장인들이 합작해 만들어 낸 명작이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의 웅장함과 렘브란트의
자화상 속 세월의 관록이 함께 녹아든
느낌이라면 믿을 수 있겠는가.

20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조지 발렌타인의 열망이 낳은 진귀한 결정체이자 최고 경지의 아트 오브 블렌딩을 실현하는 '발렌타인 40년'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다. 40년이라는 긴 기다림에도 그 진귀한 보틀 안에는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발렌타인만의 정신과 5대에 걸친 마스터 블렌더들의 열정이 오롯이 담겨져 있다.

1900년대 초반에 이미 향후 30년을 내다보고 최고의 고연산 위스키를 준비했던 발렌타인의 혜안은 3대 마스터 블렌더 잭 가우디가 도제 샌디 히슬롭에게 원액 보존의 중요성을 전한 끝에, 결국 40년산이라는 전대미문의 명작이 탄생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원액의 80% 이상은 증발되고 만다는 수치만으로 발렌타인 40년의 진가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캐스크의 오랜 향취를 정갈하게 승화할 방법이 무엇인가'와 '어떻게 하면 매년 이 진귀한 작품을 일관되게 생산해 낼 수 있는가'이다. 지금껏 비밀에 부쳐져 있는 40여 종의 몰트와 그레인 위스키를 블렌딩해 2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게 하는 비법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결론은 '발렌타인이기에 가능하다'는 한 문장으로 집약된다.

조명 아래 그 자태를 드러낸 오묘한 브라운 빛깔의 보틀은 그 자체만으로 발렌타인 40년의 특별함을 대변한다. 그 위에 일일이 손으로 아로새겨진 은 세공품, 즉 순도 90% 이상의 은으로 장식된 마개와 목걸이 장식, 인증 문장과 라벨, 베이스 컵 등의 디테일은 그야말로 보틀을 예술의 수준으로 올려놓고 있다.

19세기 말 빅토리아 여왕이 스코틀랜드를 방문했던 당시, 왕가가 인증하는 로열 워런트(Royal Warrant)를 발렌타인가(家)에 직접 수여한 그 가슴 벅찬 감흥이 현대에 재현된 것이다.

5대에 걸쳐 위대한 마스터 블렌더들이 이어 온 꿈은 드디어 현실이 되었다. 1년에 단 100병만 생산되는 발렌타인 40년에는 그 진귀함을 증명하는 일련번호와 출시년도가 각각 매겨져 있다. 이제 200여 년 동안 이어온 조지 발렌타인의 오랜 꿈을 당신의 품에 안을 시간인 것이다.

"Create a truly exquisite
Ballantine's blend,
but only when the time is right."
- George Ballantine

When the Time is Right

두 거장의 손길과 오랜 기다림이 빚어낸 결정체 발렌타인 40년을 만나는 순간

발렌타인의 설립자이자 예술의 경지에 가까운 위스키를 만들어 내기 위해 열정을 다한 선지자, 조지 발렌타인(George Ballantine).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간단하다.
"진정으로 훌륭한 발렌타인 블렌드를 만들어라. 단, 때가 되었을 때에만."

최고급 고연산 위스키를 꿈꾸다

최고의 위스키 블렌딩이란 급하게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숙성의 가치를 200여 년 전 이미 알고 있었던 조지 발렌타인(George Ballantine)은 단순히 발렌타인 위스키의 창업자를 넘어 열정적인 선지자였다. 가문의 명성과 그 유산을 이어갈 훌륭하고도 특별한 위스키를 만들고자 했던 그의 오랜 꿈, 그리고 위스키에 대한 직관과 열망은 세월을 거쳐 발렌타인 마스터 블렌더들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시대를 관통하는 가치의 수호자

조지 발렌타인의 열망은 시대를 초월하여 조금도 변함이 없는 발렌타인 위스키만의 스타일을 지키는 세상 유일무이한 존재, 마스터 블렌더들의 영감을 끊임없이 불러일으켜 왔다. 그의 꿈을 실현하고자 했던 잭 가우디(Jack Goudy)는 후대에 진귀한 위스키 셀렉션을 탄생시킬 수 있도록 최고의 몰트와 그레인으로 엄선된 술통을 저장시킨 발렌타인의 제3대 마스터 블렌더다. 그는 제자이자 현 마스터 블렌더인 샌디 히슬롭에게 그가 저장시킨 위스키의 가치와 그 맛을 지키기 위한 사명감, 적당한 때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시켰다. 그리고 이제 200여 년간의 그의 꿈과 열망이 세대를 이어 드디어 위대한 결실을 맺는 순간이 왔다.

위스키의 새로운 경지를 실현하다

샌디 히슬롭(Sandy Hyslop)은 그 자신이 경험한 시간뿐만 아니라, 함께 일한 선대 마스터 블렌더들이 전하는 시간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는 조지 발렌타인의 꿈과 선대 마스터 블렌더들의 열망을 이어받아 발렌타인 40년을 위한 캐스크 관리를 수년간 맡아 오고 있다. 그의 전문적인 노하우와 다양한 경험은 최상의 원액의 완벽한 블렌딩으로 완성된 발렌타인 40년의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오랜 세월 소중하게 오크통 안에 간직되어 온 최상의 원액이 5대 마스터 블렌더, 샌디 히슬롭의 예술에 가까운 블렌딩을 만나 마침내 선대의 염원이 집결된 위스키의 정수, 발렌타인 40년으로 탄생되는 것이다.

명장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예술 작품

발렌타인 40년은 그 품격에 걸맞는 보틀을 창조하기 위해 세계 최고의 장인과 손을 잡았다. 1300년대부터 금과 은의 품질 평가를 담당해 온 골드스미스 컴퍼니(The Goldsmith's Company) 멤버이자, 영국을 대표하는 은 세공 장인인 리차드 폭스(Richard Fox)가 그 주인공. 리차드 폭스는 롤스로이스 스페셜 에디션, F1 그랑프리 트로피, 불가리의 맞춤 제작 은 제품 등 30년이 넘게 유명 고객들을 위한 특별한 제품을 만들어 오고 있다. 그는 보틀을 개발하는 데만 2년 반, 생산하는 데는 6개월이 걸린 발렌타인 40년이 자신의 역대 최고작이라 단언한다. 아름다운 수공예품을 만들기 위해 세세한 부분까지 따지는 그의 장인정신과 열정은 발렌타인 위스키에 가장 잘 어울리는 훌륭한 보틀을 탄생시키는 데 조금의 모자람도 없다. 세계적인 세공 장인 리차드 폭스와 발렌타인의 마스터 블렌더 샌디 히슬롭. 이 두 장인의 재능, 기술, 열정 그리고 완벽을 향한 염원과 기다림의 미학이 담긴 일대의 합작품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내며 위스키 역사의 새로운 서막을 예고한다.

100병의 진귀한 명작 안에 깃든 장인정신

발렌타인 40년은 매년 전 세계에 단 100병만이 판매되는 매우 가치 있고 진귀한 위스키다. 유리 표면에 전문적으로 새겨진 발렌타인의 문장과 스털링 은 장식, 홀마크 등의 요소들은 모두 수작업으로 세심하게 제작되며 보틀마다 1부터 100까지의 고유번호가 새겨져 섬세한 아름다움과 특별함을 더한다. 스토퍼(stopper), 칼라(collar), 씰(seal), 라벨(label), 베이스컵(base cup)이 순도 90% 이상의 스털링 은으로 장식되었다. 은의 순도를 나타내는 700년 전통의 런던 에세이 오피스(London Assay Office)의 홀마크는 각각의 장식에 정성스럽게 아로새겨져 하나의 예술 작품과도 같은 가치를 뿜어낸다.

장인의 손길과 40년의 세월이 빚어낸 결정체

스코틀랜드 전 지역 최상의 몰트 및 그레인 위스키만으로 특별히 블렌딩한 위스키, 발렌타인 40년. 다양한 연도에 걸쳐 숙성된 원료들의 품질과 다양성이 반영된 최고 경지의 '아트 오브 블렌딩'을 눈으로 보여주는 이 새로운 블렌드는 전 세계의 위스키 전문가와 와인 전문가들에게 아주 특별한 맛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지금은 오직 발렌타인만이 선보일 수 있는 아트 오브 블렌딩이 실현하는 궁극의 결정체인 발렌타인 40년을 즐길 시간이다.

단 한 모금으로 깊은 감명과 여운을 남기다

진귀한 보틀 속 발렌타인 40년은 깊고 짙은 컬러로 빛난다. 그 풍부한 컬러 속에는 시럽에 절인 잘 익은 배의 향이 가득하며, 뒤이어 과일 케이크와 은은한 시나몬, 뿌리생강의 향이 차례로 펼쳐진다. 맛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깊어 토피 사탕과 캐러멜, 볶은 사과의 복합적인 맛으로 부드럽고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바디감이 절정을 이룬다. 이 명작에 담긴 노력과 열정, 장인정신이 그대로 느껴지는 기분 좋은 끝 맛은 그 기다림의 시간만큼이나 오랜 여운을 혀끝에 남긴다.

진귀한 보틀의 소유자에게 남겨질 과제

단 한 모금만으로 당신은 전혀 다른 시공간에 머물 수 있다. 이 하나의 작품은 마실 때마다 발렌타인 고유의 위대한 유산과 마주하게 하는 동시에 오늘날의 성공과 화려함을 상징한다. 예술과도 같은 위스키 블렌딩의 증거이자 최상의 고연산 블렌드를 창조해 내겠다는 조지 발렌타인의 꿈의 산물 그 자체인 발렌타인 40년은 200여 년의 오랜 세월과 40년의 기다림의 시간을 거쳐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이 보틀을 소유하는 이들에게 남겨질 유일한 숙제는 바로 언제가 이 훌륭한 위스키를 즐길 적당한 때인지를 결정하는 일이 아닐까.

Launch of Ballantine's 40 Year Old

두 거장의 손길과 40년의 세월이 빚어낸 궁극의 가치

지난 3월 22일 서울 장충동에 위치한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크리스탈 볼룸에서는 발렌타인 40년 런칭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발렌타인의 높은 가치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기 위해 1년에 단 100병만 한정 생산되는 발렌타인 40년은 최고의 원액을 빚어 최상의 위스키를 만들고자 하는 창립자 조지 발렌타인의 정신을 반영한 위스키다. 이 진귀한 보틀은 맛과 향, 컬러의 섬세한 조합과 시대를 뛰어넘는 예술적 블렌딩 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더욱 귀중한 가치를 담고 있다. 이날 최초로 공개되는 '발렌타인 40년'의 출시를 축하하기 위해 발렌타인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자리한 가운데 발렌타인의 살아있는 수호자, 마스터 블렌더 샌디 히슬롭과 영국의 저명한 세공 장인인 리차드 폭스도 함께해 더욱 빛나는 시간이 되었다.

조지 발렌타인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

발렌타인 40년이 처음 공개되던 날

발렌타인 40년이 국내에서 최초로 그 모습을 드러내던 날,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크리스탈 볼룸은 의미 있고 소중한 이들이 한곳에 모이는 자리에 걸맞은 분위기로 꾸며져 축하객들과 VIP를 맞았다. 유니크한 조명에 신비로움이 감도는 실내 장식은 이 위대한 위스키를 만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 온 이들의 설레임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었다. 향기로운 꽃 장식과 테이스팅을 위한 키트가 준비되어 있는 테이블에 VIP들이 착석하고, 아나운서 정지영의 오프닝 멘트와 함께 행사는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무대 위로 올라온 페르노리카 코리아 장 마누엘 스프리에 대표이사는 "40이란 숫자는 총명함이 깊어지는 숫자라 생각한다"는 의미 있는 말을 시작으로 인사를 전했다.

이어 발렌타인의 5대 마스터 블렌더인 샌디 히슬롭이 무대 위로 올라오자 행사장의 분위기는 한층 더 뜨거워졌다. 샌디 히슬롭은 직접 테이스팅 세션을 진행하며 자신만의 특별한 테이스팅 방법을 소개함으로써 모든 이들이 발렌타인 고유의 시그니처 스타일을 더 가깝고 진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었다.

테이스팅 시간 내내 행사장은 각 연산별 발렌타인 위스키가 지닌 고유의 컬러와 다양한 풍미를 직접 음미하는 사람들의 탄성과 깊고 부드럽고 달콤하면서도 우아한 향들로 가득 찼다.

오케스트라의 합주와 소프라노 김수연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어우러지는 가운데 행사의 하이라이트, 언베일링 퍼포먼스가 막을 올렸다. 발렌타인 40년의 탄생 여정을 담은 영상이 펼쳐지는 가운데, 발렌타인 40년을 감싸 안은 스태프들이 각 테이블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자 좌중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꿈의 원액을 발렌타인만의 비법으로 블렌딩한 발렌타인 40년을 직접 테이스팅하는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01

02

01. 특별히 제작된 Ballantine's 40 테이스팅 키트가 각 테이블에 전달되었다
02. 샌디 히슬롭(좌)과 리차드 폭스(우)의 특별한 대담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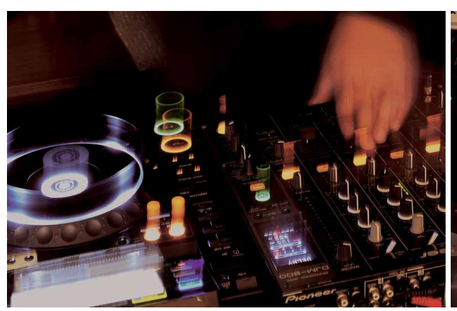
02

03

04

05

01. 발렌타인 40년 출시를 기념해 제작된 Ballantine's 40 테이스팅 키트
02. VIP로 참석한 디자이너 장광효
03.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전하는 페르노리카 코리아 장 마누엘 스프리에 대표이사
04, 05. 이번 행사는 발렌타인을 사랑하는 사람들 간의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두 장인의 열정과 기술이 담겨 탄생한
지상 최고의 위스키

"드디어 조지 발렌타인이 꿈꿨던 200여 년의 염원이 실현되었습니다. 사실 40년간 숙성된 위스키를 블렌딩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80%에 달하는 원액이 자연 휘발된다는 것도 그 이유이지만 캐스크에서 배어 나온 맛과 향이 위스키의 맛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껏 40년이라는 고연산의 위스키를 매년 100병씩 생산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이제 발렌타인만이 가능한 새로운 미래를 여러분 앞에 선보일 시간입니다."

발렌타인의 역대 최고의 마스터 블렌더로 인정받고 있는 샌디 히슬롭은 자신에게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발렌타인 40년의 모든 제작 과정을 세심하게 일일이 살펴보고 감독하였으며,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원액도 직접 선별하였다며 남다른 감회와 완성도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하였다. 그는 또 3대 마스터 블렌더인 잭 가우디가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해 준 원액 덕분에 지금의 영광이 가능했다며 선대에게 모든 공을 돌리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발렌타인 40년이 더욱 주목을 끄는 데는 영국을 대표하는 세공 장인 리차드 폭스의 손길이 닿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폭스 실버의 설립자이기도 한 리차드 폭스는 독특한 창작품과 최고의 기술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실력자로, 이번 발렌타인 40년의 보틀 작업을 통해 그만의 뛰어난 재능과 혜안이 담긴 섬세한 결과물이 다시 한 번 빛을 발휘했다. 마스터 블렌더인 샌디 히슬롭의 열정과 수십 년의 세월이 함께 빚어낸 최고급 위스키에 어울리는 진정한 걸작을 창조해 낸 것이다. 그의 손에서 완성된 발렌타인 40년의 보틀은 마개, 칼라, 인증문장과 라벨, 베이스 컵까지 5곳이 순도 90% 이상의 은으로 장식되었으며, 각 보틀마다 1부터 100까지의 고유 번호와 출시년도가 수작업을 통한 세심한 작업으로 새겨져 특별함을 더했다.

이렇게 두 명장의 협업으로 탄생한 발렌타인 40년은 깊고 짙은 색상을 띠며 시럽에 절인 잘 익은 배 향과 과일 케이크 향의 풍부한 조합에 은은한 시나몬과 뿌리생강 향이 어우러져 깊이 있는 풍미를 자아낸다. 풍부한 토피 사탕과 캐러멜 맛에 달콤하고 부드러운 붉은 사과 맛, 강한 과일 맛이 가미되어 부드럽고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혀끝에 감도는 기분 좋은 끝 맛까지 더해져 40년의 세월을 거쳐 숙성된 깊고 풍부한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다.

공식적인 행사가 끝나고 이어진 2부에서는 참석한 각계각층의 VIP들이 두 장인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사교 모임이 이어졌다. 발렌타인 40년이 처음 선을 보이고 샌디 히슬롭과 리차드 폭스, 두 주인공이 함께하여 더욱 빛났던 이번 행사는 발렌타인 역사의 한 페이지로 오래도록 기억될만한 뜻깊은 시간이었다.

Ballantine's

LEAVE AN IMPRESSION

Ballantine's 40

두 거장의 손끝에서 실현된
200여 년간의 열망

발렌타인 40년은 최상의 위스키를 만들고자 했던 창립자 조지 발렌타인의 열망을 200여 년의 세월을 넘어 마침내 실현시킨 위스키의 정수다. 마스터 블렌더 샌디 히슬롭과 세계적인 세공 장인 리차드 폭스가 합작하여 탄생한 이 명작은 매년 단 100병만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

Tasting Note

Color	깊고 짙은 컬러
Nose	잘 익은 배와 시나몬, 뿌리생강 향이 어우러진 깊이 있는 풍미
Body	다양한 과일 맛이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조화를 이룬 바디
Taste	풍부한 토피 사탕과 캐러멜, 달콤하고 부드러운 붉은 사과 맛
Finish	오래도록 혀끝에 머무는 기분 좋은 끝 맛

Ballantine's 30

소수의 선택된 분께만 허락되는
최고의 프리미엄

발렌타인 30년은 수퍼 프리미엄 스카치 위스키 중 단연 최고 제품이다. 수작업으로 직접 고른 몰트와 그레인 위스키가 최소 30년의 숙성 기간을 거쳐 완벽의 경지에 이르게 될 때, 비로소 한정된 수량으로 소수만이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명품 위스키가 탄생한다.

Tasting Note

Color	깊은 골드 컬러
Nose	섬세한 오크 향과 바닐라 향이 어우러진 달콤한 향
Body	강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의 매혹적인 풀 바디
Taste	쉐리, 허니, 플로럴, 바닐라가 감미롭게 어우러진 맛
Finish	오래도록 여운을 남기는 우아한 끝 맛

Ballantine's Limited

진귀한 몰트만으로 빚어낸
최상의 위스키

발렌타인 리미티드는 상업적으로 판매되지 않는 희소성 높은 몰트들로 블렌딩되어 그 특별함을 더한다. 가장 진귀한 원액과 3명의 마스터 블렌더에 의해 완성된 장인정신의 결정체답게 병마다 고유번호가 새겨져 있으며, 고급스러운 우드 프레임에 가죽 느낌의 커버가 품격을 높인다.

Tasting Note

Color	풍부한 황금 호박색
Nose	온화하고 풍부한 달콤함, 감초와 오렌지의 향이 배어나는 성숙한 풍미
Body	크리미하면서 부드럽고 매끈함
Taste	풍성한 첫 맛에서 이어지는 발렌타인 특유의 잘 익은 배와 복숭아, 바닐라의 맛
Finish	입 안을 따뜻하게 감싸며 긴 여운을 남김

Ballantine's 21

예술적 스타일을 지닌
스코틀랜드의 자부심

발렌타인 21년은 위스키 전문가와 애호가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는 위스키로, 반짝이는 황금색, 향기로운 꽃향기, 아로마틱한 풍미 등 오묘한 특성을 갖고 있다. 고급 위스키의 전형으로 칭송 받는 발렌타인 21년은 비단처럼 부드럽게 혀에 감기는 은은하고도 긴 여운을 지닌 위스키의 대명사다.

Tasting Note

Color	반짝이며 붉은 빛이 도는 골드 컬러
Nose	허니의 달콤함에 애플과 플로럴 향이 조화를 이룬 향
Body	부드러운 새틴 느낌의 바디
Taste	헤더, 스모크, 감초, 아로마틱 풍미가 느껴지는 맛
Finish	드라이 쉐리 느낌이 오래 지속되는 원숙한 끝 맛

Ballantine's 17

이상적인 스카치 위스키의 가치를 실현하는
발렌타인 가문의 대표 브랜드

발렌타인 17년은 선명한 황금 호박색으로 오크 향의 달콤함과 감미로운 바디감을 지니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이 평가되는 위스키 중 하나이다. 우아하고 균형 잡힌 부드러움으로 위스키도 예술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 발렌타인의 대표작이다.

Tasting Note

Color	영롱한 황금빛 앰버 컬러
Nose	우드와 바닐라 느낌이 균형 잡힌 깊고 우아한 향
Body	크리미하고 매혹적인 풀 바디
Taste	오크와 피트의 스모키한 향이 묻어나는 허니의 달콤한 맛
Finish	가벼운 스모키함과 바닐라의 긴 여운

Signature Distillery Editions

첫 번째 에디션
발렌타인 17 글렌버기 200주년

발렌타인 17년의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한 시그니처 디스틸러리 에디션의 첫 번째 버전. 글렌버기 증류소의 200주년을 기념하여 탄생된 소장 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사과 향에 꿀의 달콤함이 조화를 이루고, 오렌지 맛이 벨벳처럼 부드러운 감촉으로 오랜 여운을 남긴다.

Tasting Note

Color	황금빛 호박색
Nose	우아하게 균형잡힌 풍부한 향
Body	크리미하고 달콤한 부드러움
Taste	복합적이면서도 부드러운 향긋한 맛
Finish	여운이 오래 남는 라이트한 오크 향

Signature Distillery Editions

두 번째 에디션
발렌타인 17 스카파

스코틀랜드 하이랜드(Highlands) 지역에 위치한 스카파의 풍부한 풍미를 담은 시그니처 디스틸러리 스페셜 에디션으로, 이국적이고 미스터리어스하며 드넓은 스카파 해안의 지역적인 특성이 반영되었다. 발렌타인의 완벽한 부드러움의 근간이 되는 스카파 몰트가 강조되어 풍부한 과일의 맛과 바닐라 향이 조화를 이룬다.

Tasting Note

Color	밝은 황금색(아메리칸 버번 오크 사용)
Nose	바닐라 크림, 꽃향기, 희미한 바다 향
Body	순수함, 고급스런 부드러움
Taste	매끄러움, 바닐라의 단맛, 희미한 짠맛
Finish	신선한 바다 향의 여운

Ballantine's

LEAVE AN IMPRESSION.

True character
leaves a
lasting impression

04

Art of
Blending

Discover tastes of Ballantine's

발렌타인은 위스키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단순히 맛과 향만을 담은 것이 아닌 스코틀랜드의 자연과 명장의 노력, 열정, 무한한 가치가 그 안에 녹아있다. 발렌타인의 진가를 탐구하는 데 있어 발렌타인 멘토링 프로그램은 당신의 현명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How Much Do You Know about Whisky?

발렌타인에 녹아드는 그들만의 의미 있는 시간

발렌타인 멘토링 프로그램

변하지 않는다는 것. 정체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200여 년 전 발렌타인의 설립자 조지 발렌타인이 위스키 속에 담아내고자 했던 최상의 원료, 명장의 블렌딩 그리고 위대한 가치를 현재까지 변함없이 지켜올 수 있었던 건 5명의 마스터 블렌더, 그리고 발렌타인을 탐구하고 즐겨온 이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조지 발렌타인의 한결같았던 꿈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발렌타인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멘토링은 사전적 의미로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유경험자 혹은 선배가 오랜 기간에 걸쳐 조언과 도움을 베풀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발렌타인의 멘토링 프로그램 역시 마스터 블렌더, 브랜드 앰버서더 등 위스키 전문가가 위스키의 유래에서부터 역사, 종류별 특성 등 위스키에 관련된 모든 길을 편안하게 안내하는 클래스를 일컫는 말이다. 물론 위스키를 처음 경험하는 이들뿐 아니라 그동안 위스키를 즐겨왔던 애호가들에게도 좀 더 제대로 위스키를 즐길 수 있는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위스키는 생산지와 원료, 블렌딩에 따라 그 각각의 개성을 드러내며 다양한 브랜드에서 출시되고 있지만, 와인처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위스키는 어떻게 즐기느냐에 따라 숙성된 향과 맛이 다르게 전달될 수 있는 만큼 위스키 전문가를 통한 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스카치 위스키 발렌타인의 경우, 발렌타인 12, 17, 21, 리미티드, 30, 40 등 가장 많은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 브랜드인 만큼 각 연산별로 미묘하면서도 확연한 맛과 향의 차이를 느낄 수 있음은 물론이다. 누구보다 발렌타인을 잘 이해하고 있는 위스키 전문가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은 단순히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 이상의 값진 시간을 선물한다.

발렌타인 멘토링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 구성으로 나뉜다. 발렌타인의 역사 및 유래에 대한 설명을 서두로, 발렌타인 위스키의 재료가 되는 스코틀랜드의 자연과 증류소를 소개한다. 이후 본격적인 테이스팅 과정이 이어지며, 마스터 블렌더 및 최고의 위스키 전문가의 안내를 통해 발렌타인 위스키의 진정한 의미를 맛볼 기회가 주어진다.

위스키 테이스팅 과정에서의 글라스는 그 선택에 따라 '위스키의 가치'가 달라질 만큼 중요하다. 발렌타인 멘토링 클래스에서는 발렌타인 위스키의 맛과 향을 느끼기에 최적화된 노징 글라스를 사용해 시음한다. 셰리 코피타(Sherry Copita)나 여러 디자인의 노징 글라스를 통해 오랜 기간 숙성된 발렌타인의 깊고 진한 고유의 맛과 향을 그대로 전달한다.

발렌타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위스키 전문가는 발렌타인 고유의 가치를 알아갈 수 있는 방법만을 제시할 뿐 발렌타인의 가치를 성급하게 단정짓지 않는다. 친근하다가도 어느새 새롭게 다가오는 발렌타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참가자들에게 남겨두는 것. 전문가는 다만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 스스로가 그 방법을 향해 탐험할 수 있도록 친절히 안내할 뿐이다.

Ballantine's Mentoring Program

발렌타인 챔피언십 현장에서 경험한 위스키 클래스만의 특별한 감동

2012 발렌타인 챔피언십 기간 중 마련된 이번 발렌타인 멘토링 프로그램은 위스키 전문가를 통해 발렌타인의 과거와 현재는 물론, 그 속에 숨겨진 감성을 참가자들에게 전달했다. 열정이 느껴지는 경기 현장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인 만큼 위스키에 관한 정보 제공과 함께 발렌타인 챔피언십의 다채로운 스토리가 담겼다.

The Original Scotland

변하지 않는 근원, 스코틀랜드의 오리지널리티

2012 발렌타인 챔피언십 경기가 시작된 첫날, 대회가 개최된 블랙스톤 클럽하우스에서 특별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발렌타인의 다각적인 매력, 본연의 향과 맛을 느낄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개최된 것. 발렌타인 멘토링 클래스는 전문가를 통해 발렌타인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언제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이번 멘토링 클래스의 경우, 발렌타인 챔피언십이 열리고 있는 현장에서 '발렌타인'의 가치를 직접 느껴볼 수 있는 기회로, 경기장을 찾은 취재진을 비롯한 골프와 발렌타인을 사랑하는 독자들이 참여해 더욱 의미가 깊었다.

"골프와 위스키의 만남에 대해 아마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두 가지는 상당히 많은 유사성을 지니고 있죠. 가장 큰 공통점은 골프와 위스키 모두 스코틀랜드에서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둘은 숙련된 기술, 열정, 완벽을 추구하는 노력 그리고 인내심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도 서로 부합합니다. 바로 여기에 발렌타인 챔피언십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이번 발렌타인 챔피언십을 통해 고스란히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멘토링 프로그램은 위스키 전문가, 글로벌 브랜드 앰버서더 대런 호지(Darren HOSIE)씨가 발렌타인 챔피언십의 탄생 배경을 설명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위스키의 종류별 특성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부터 1827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첫 상점을 열면서 시작된 발렌타인의 출발을 이야기하자 참가자들은 귀를 기울이며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이후 소개되는 발렌타인의 히스토리, 스코틀랜드에 위치한 4개 증류소의 특징 등 발렌타인의 다양한 스토리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이 한 단계 더 위스키 전문가로 발돋움할 수 있게끔 도와주었다.

Enjoy the Tasting with Your Five Senses

오감을 통해 스스로 발견하는 **발렌타인의 고귀한 품격**

발렌타인이 말하는 '테이스팅 퍼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인 노징 글라스와 미네랄워터는 참가자들의 테이블에 가지런히 세팅되어 있었다. 이날의 테이스팅 블렌드는 발렌타인 17, 21, 리미티드, 30의 4가지. 브랜드 앰버서더 대런 호지 씨는 빛깔을 보고, 향을 느끼고, 맛을 보는 테이스팅 과정에 아직 낯선 참가자들을 편안한 분위기로 이끌며, 각 과정에 담긴 의미를 전달했다. 위스키의 숙성 과정에서 닫혀 있던 향을 풀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워터의 참뜻도 참가자들에게 설명해 주었다. 또 4가지 위스키로 구성된 테이스팅 블렌드의 특징과 차이점을 언급하며, 참가자들이 테이스팅을 통해 직접 느껴볼 수 있도록 배려했다.

그간 위스키가 남성의 전유물로 인식되던 고정관념을 깨듯 이번 멘토링 프로그램에는 여성 참가자가 많았다. 발렌타인 위스키의 부드러우면서도 따뜻한 향이 여성 참가자들의 시각, 미각과 후각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듯 모두 만족한 모습이다. 진지한 표정으로 앰버서더의 이야기를 경청하던 참가자들은 직접 느낀 '발렌타인'의 빛깔, 향, 맛을 카메라에 담거나 수첩에 메모해 두는 열정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테이스팅을 한 4가지 위스키의 차이점을 서로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남은 시간을 보냈다.

발렌타인에서 주최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은 단순히 위스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만이 아닌 직접 발렌타인을 경험하면서 '발렌타인'의 진면목을 각자의 마음속에 담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위스키 애호가들에게는 전문적인 정보 교류의 장이 되기도 하며, 처음 접하거나 혹은 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발렌타인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된다.

멘토링 클래스 참가자들은 비단 그 맛과 향만을 느끼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랜 시간 숙성되며 발렌타인 속에 스며든 누군가의 열정과 노력도 함께 발견했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발렌타인 챔피언십의 열기가 느껴지는 현장에서 진행된 멘토링 클래스였기에 그들이 맛본 '발렌타인'에는 두 배, 세 배의 열정이 추가되지 않았을까. 골프와 발렌타인의 길고 단단한 연결고리만큼 참가자들이 처음으로 마주한 발렌타인과의 연결 또한 일회적이지 않고 계속되기를 바라는 것이 멘토링 프로그램의 또 다른 취지이기도 하다. 또한 200여 년이 넘는 발렌타인의 긴 역사에서 5명의 마스터 블렌더를 통해 이어진 일관된 품질과 불변의 가치, 발렌타인의 정신이 모든 이에게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일 것이다.

Mini Interview

발렌타인을 이야기하다

이번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한 글로벌 브랜드 앰버서더 대런 호지(Darren HOSIE)씨는 스카치 위스키의 본고장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누구보다 위스키를 잘 알고 느껴온 이다. 그런 까닭인지 멘토링 클래스를 통해 그가 들려준 '발렌타인'의 이야기는 더욱 특별했다. 다양한 위스키를 접하는 앰버서더인 그에게 발렌타인을 한마디로 정의해주길 부탁했다. 그는 주저 없이 명쾌한 대답을 내놓았다.

"전 평소에도 위스키를 즐겨 마십니다. 운이 좋게도 제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형이 위스키를 즐기셨던 덕분에 저 역시도 많은 술 중 위스키가 가장 선호하는 술이 되었지요. 발렌타인 챔피언십에 와서 좋은 분들을 만나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많은 분들께 발렌타인의 매력을 알려드릴 수 있어 행복했고 제게는 값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환상적인 위스키 발렌타인 17, 21, 리미티드, 그리고 발렌타인 30의 진정한 가치를 참가자들이 느끼셨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 글로벌 브랜드 앰버서더 **대런 호지(Darren HOSIE)**

Global Trend in Art & Culture

세계의 문화와 예술, 트렌드에 주목하는 당신을 위해,
발렌타인이 추천하는 국내 및 해외 축제 / 행사 소식을
한눈에 만나 보는 시간.

05

Ballantine's Pick

뒤셀도르프 국제 캐러밴 박람회
2012.08.25–09.02 / 독일 뒤셀도르프 / www.caravan-salon.de

LONDON *100% Design* 2012

런던 100% Design 박람회

2012.09.19 – 09.22 / 영국 런던 / www.100percentdesign.co.uk

매년 9월 런던 얼즈 코트(Earls Court)에서는 세계 제일의 전시, 미디어그룹인 Reed Exhibition에서 개최하는 영국 최고의 산업디자인 박람회가 열린다. 최신 인테리어 자재, 가구, 조명, 벽지, 주방용품, 섬유 등 산업디자인 전반을 아우르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컨템포러리 디자인 전시로 오직 현대적인 작품들로 구성된다.
런던 100% 디자인 박람회는 '파리 메종&오브제', '밀라노 가구박람회'와 더불어 세계 3대 디자인 전시회로 400여 명의 출품자와 2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정도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100% 디자인이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듯 박람회 출품작 중 50%만이 엄선되어 구성될 정도로 전시 작품의 선정 기준은 매우 엄격하다. 그만큼 예술적인 감각이 100% 묻어나는 작품들로 이루어진다는 의미. 박람회는 새로운 소재와 구성 요소를 보여주는 '100% Material' 부스와 재능 있는 엘리트 디자이너의 작품이 소개되는 '100% Futures' 부스로 나뉘어 전시된다. 전 세계적인 디자인 트렌드를 읽을 수 있음과 동시에 떠오르는 신진 디자이너들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다. 특히 2008년부터는 국내의 유명 작가들의 작품도 이곳에서 만나볼 수 있어 더욱 반갑다. 전시장 내 '한국관'을 별도로 오픈해 우리나라 대표 디자이너 및 전문기업의 우수한 디자인 상품이 전시되어 한국의 미를 세계로 알리는 데 공헌하고 있다.

07 July

2012 여수세계박람회

2012.05.12 – 08.12 / 여수 여수신항 일대
www.expo2012.kr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담아낸 여수세계박람회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여수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전시장에 담아내고 있다. 총 104개국에서 참가하여 문화의 다양성이 녹아있으며 76개의 전시관은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카셀 도큐멘타 국제 미술제

2012.06.09 – 09.16 / 독일 카셀
d13.documenta.de

현대 미술 페어 중 가장 권위 있는 전시인 카셀 도큐멘타는 독일의 작은 소도시 카셀에서 5년에 한 번 개최된다. '100일간의 미술관'으로 불리며 도심 속 다양한 전시장에서 세계적인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으며, 카셀 도큐멘타로 인해 도시 전체가 예술의 향기에 흠뻑 취한다.

독일 오펜부르크 국제 승마 박람회

2012.07.25 – 2012.07.29 / 독일 오펜부르크
www.eurocheval.de

퍼스 식품 및 와인 박람회

2012.07.13 – 07.15 / 호주 퍼스
www.goodfoodshow.com.au

JA New York 보석 시계 전시회 2012

2012.07.29 – 07.31 / 미국 뉴욕
www.ja-newyork.com

뮤지컬 모차르트

2012.07.10 – 2012.08.04 / 세종문화회관 세종대극장
www.sejongpac.or.kr

08 August

베니스 국제 영화제

2012.08.29 – 09.08 / 이탈리아 베니스
www.labiennale.org/it/cinema

베니스 국제 영화제는 1932년 처음 시작되어 여러 국제 영화제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칸 국제 영화제, 베를린 국제 영화제와 함께 세계 3대 영화제로 손꼽힌다. 리도 섬 중앙에 있는 '팔라조 델 시네마'를 메인 극장으로 진행되는 베니스 국제 영화제는 11일간 '물의 도시' 베니스를 영화의 물결로 넘실대게 한다. 처음 개최될 당시에는 베니스 비엔날레의 부속 행사로 치러졌지만, 이제는 독립적인 영화제로 분리되어 진행되면서 미지의 영화 발굴은 물론 저명한 감독들과 스타들이 참가하는 세계적인 영화 축제로 거듭났다.

뒤셀도르프 국제 캐러밴 박람회

2012.08.25 – 09.02 / 독일 뒤셀도르프
www.caravan-salon.de

뉴욕 패션 박람회

2012.08.05 – 08.07 / 미국 뉴욕
www.fameshows.com

토론토 보석 박람회

2012.08.12 – 08.14 / 캐나다 토론토
toronto.jckonline.com

내셔널 지오그래픽전 _지구를 담은 사진전 2

2012.08.12 – 10.11 / 예술의전당 디자인미술관
www.ngphoto.co.kr

09 September

파리 모터쇼

2012.09.29 – 10.14 / 프랑스 파리
www.mondial-automobile.com

오랜 명성으로 전 세계 5대 모터쇼 중의 하나로 손꼽히는 파리 모터쇼는 최근 독일 모터쇼와 상호 병행 개최를 협의해 2년에 한 번 짝수 해에 열린다. 24개국 600여 개 업체가 양산 차량 및 컨셉 차량을 선보일 예정으로 상업적인 측면을 벗어났다는 평을 받고 있다.

오클랜드 국제 보트 박람회

2012.09.27 – 2012.09.30 / 뉴질랜드 오클랜드
www.auckland-boatshow.com

오클랜드는 바다와 인접하고, 해양 스포츠를 즐기는 라이프스타일 덕에 '항해의 도시'라는 닉네임으로 불리기도 한다. 오클랜드 국제 보트쇼가 펼쳐지는 바이아덕트 하버 주변 바다는 국제 보트쇼가 열리는 4일간 커다란 정박장이 되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모스크바 시티 발레 내한공연 _백조의 호수

2012.09.26 – 09.28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www.bravocomm.co.kr

두바이 국제 가구 / 인테리어 박람회

2012.09.24 – 09.27 /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www.indexexhibition.com

라이프찌히 국제 시계 및 보석 박람회

2012.09.01 – 2012.09.03 / 독일 라이프찌히
www.midora.de

10 October

트리에스테 에스프레소 커피 박람회

2012.10.25 – 10.27 / 이탈리아 트리에스테
www.triestespresso.it

이탈리아 북동부 끝자락에 위치한 트리에스테는 지리적인 특성으로 합스부르크가의 통치 하에 있다가 세계대전을 거치고 이탈리아로 귀속된다. 유럽의 중요한 항구도시이자 유럽에 아라비안 커피가 처음 소개된 곳으로 오늘날 유명한 'illy(일리)' 커피의 탄생지이기도 하다. 에스프레소 향이 가득한 도시 '트리에스테'에서 격년으로 개최되는 커피 박람회가 더욱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양한 커피 브랜드에서 부스를 마련해 원두에서부터 에스프레소 머신 등 커피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박람회 속에 담아낸다.

파리 국제 식음료 박람회

2012.10.21 – 2012.10.25 / 프랑스 파리
www.sialparis.com

밀라노 건축 디자인 박람회

2012.10.17 – 10.20 / 이탈리아 밀라노
www.madeexpo.it

취리히 국제 아트 전시회

2012.10.12 – 10.14 / 스위스 취리히
bbifa.com

Classic with a Modern Edge

클래식한 품격을 모던함에 담은 색다른 공간

B2M

클래식한 품격의 대명사, 발렌타인의 인상을 가장 잘 반영하면서도 모던함을 동시에 품은 곳. 색다른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고품격 정통 클래식 바 'B2M'을 찾았다.

B2M은 개조가 덜 된 지하실처럼 높은 천장에 파이프 관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오픈형 구조로 되어 있다. 고품격 위스키 바가 아닌 마치 뮤지컬 연습장에 찾아온 것 같은 분위기다. 벽 한쪽에는 라이브 공연용 앰프가 보인다. 기존에 찾았던 여느 바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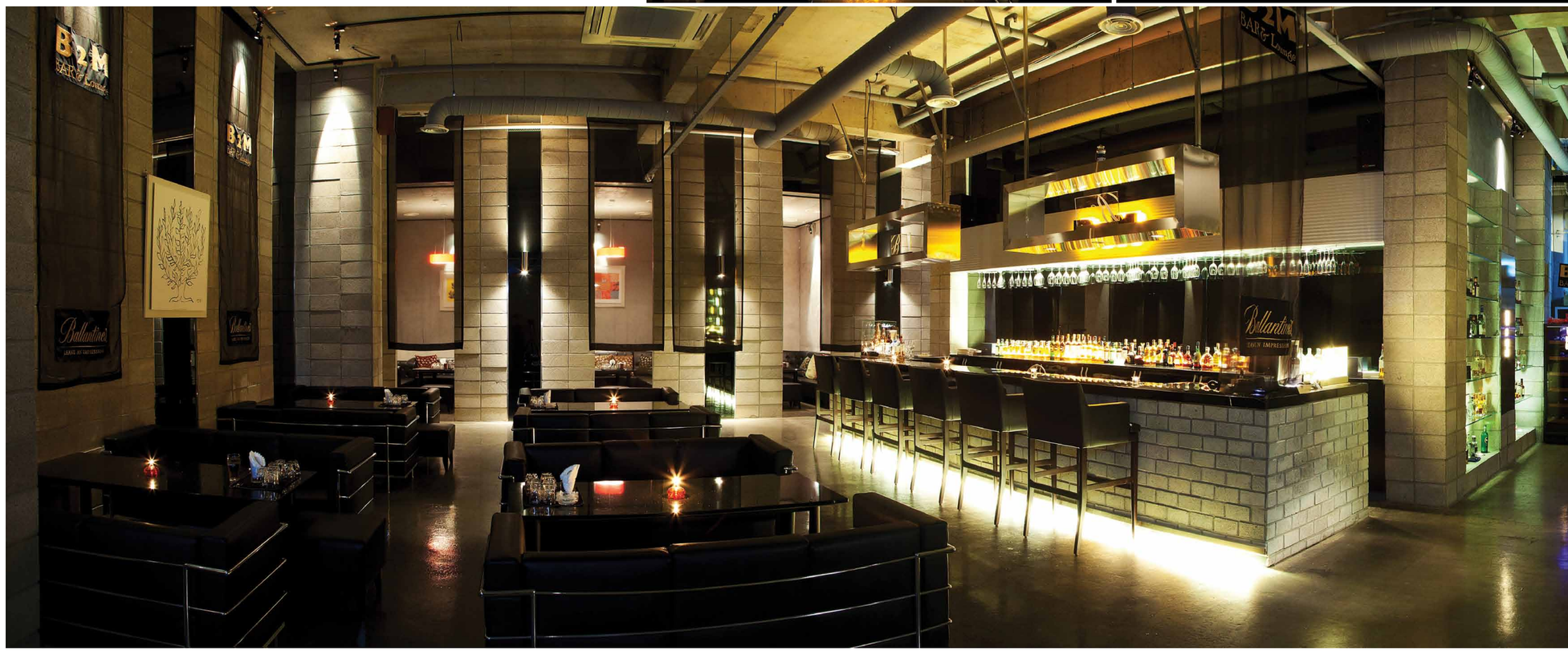
"예전에는 라이브 공연도 가끔 했어요.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오신 분이나 자신만의 시간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방해가 되겠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따로 룸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좋아들 하세요. 발렌타인을 색다르게 즐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는 듯해요."

재즈 피아노도 아니고 전자 앰프라니. 인테리어가 특이하다는 물음에 웃으며 대답하는 B2M 이강민 대표는 한때 밴드를 했을 정도로 음악 마니아다. 잘나가는 대기업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바를 차릴 때까지만 해도 위스키의 맛을 전혀 몰랐는데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 이제는 '발렌타인 위스키'만의 진정한 맛과 매력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고.

"발렌타인은 음악과 비슷해요. 같은 곡이라도 취향에 따라 선호도가 나뉘지만, 좋은 음악은 다수가 좋다고 공감할 수 있으니까요. 발렌타인이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것 또한 그만큼 매력적인 위스키라는 반증이겠죠."

B2M은 정통 바의 느낌과 다른 인테리어와 분위기 덕분에 드라마 촬영 장소로도 인기가 많다고 한다. 실제로 취재차 방문한 날도 방송국 드라마 스태프들의 사전 방문으로 내부가 북적거렸다. 오픈한 지 아직 일 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특별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이곳은 발렌타인 5대 마스터 블렌더 샌디 히슬롭과 세계적인 세공 장인 리차드 폭스가 직접 방문했을 정도로 각광받고 있는 핫 스팟(Hot Spot)으로 주목할 만하다.

"발렌타인은 말할 것도 없이 유명하고 좋은 술이라고 생각해요. 위스키의 맛을 모르더라도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고 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참맛을 알게 되기도 하고요. 위스키 맛을 몰랐던 저도 이제 발렌타인만의 맛을 이해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더 많은 분이 저처럼 발렌타인을 이해하고 그 맛에 빠져들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무겁고 장중하지 않은 분위기를 살리려는 건 그런 의도이기도 하구요. 마셔 보면 확실히 발렌타인만의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B2M |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7-14 B2F **전화번호** 070-4273-1542 **운영시간** 07:00 pm ~ 04:00 am

Cozy, Comfy and Relaxing

하늘, 달, 별을 보며 발렌타인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아지트

수작

눈이 오면 눈을 보며, 비가 오면 비를 보며,
강남역 안쪽 골목길을 돌아가면 만날 수 있는 바,
'수작'은 발렌타인과 풍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다.

일반적으로 지하나 1층에 위치하고 있는 다른 바와 달리 3층에 자리한 수작은 외관부터 통유리와 테라스의 절묘한 조화로 남다른 특색을 보여준다. 이곳은 비즈니스 모임뿐 아니라 연인과의 달콤한 만남에도 어울리는 곳이다.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강남역의 불빛이 아름답게 펼쳐지고 시원하게 탁 트인 테라스에서는 여름 밤이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맑은 날에는 휘황한 달도 구경할 수 있다. 비가 오면 빗줄기를 바라보며 눈이 오면 눈송이를 감상하며 발렌타인을 맛볼 수 있는 색다른 낭만이 존재하는 곳. 그래서 수작은 '나를 위한 특별한 공간' 같은 느낌으로 업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편안한 낭만으로 다가간다.

부드러운 발렌타인의 풍미처럼 사람 좋고 친절한 인상의 정재윤 대표는 "수작은 무엇보다 아늑함과 편안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오래도록 알아온 나만의 아지트 같은 느낌이랄까요? 편안함, 부드러움으로 어우러진 바의 이미지가 발렌타인과 잘 맞는 것 같아요."라며 '수작'의 매력을 설명한다. 좋은 술은 즐거운 기분으로 마셔야 하고, 그러자면 무엇보다 마시는 장소가 '즐거운 기분'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업장을 오픈하면서 기존 인테리어에 룸을 추가해 아지트의 분위기를 더욱 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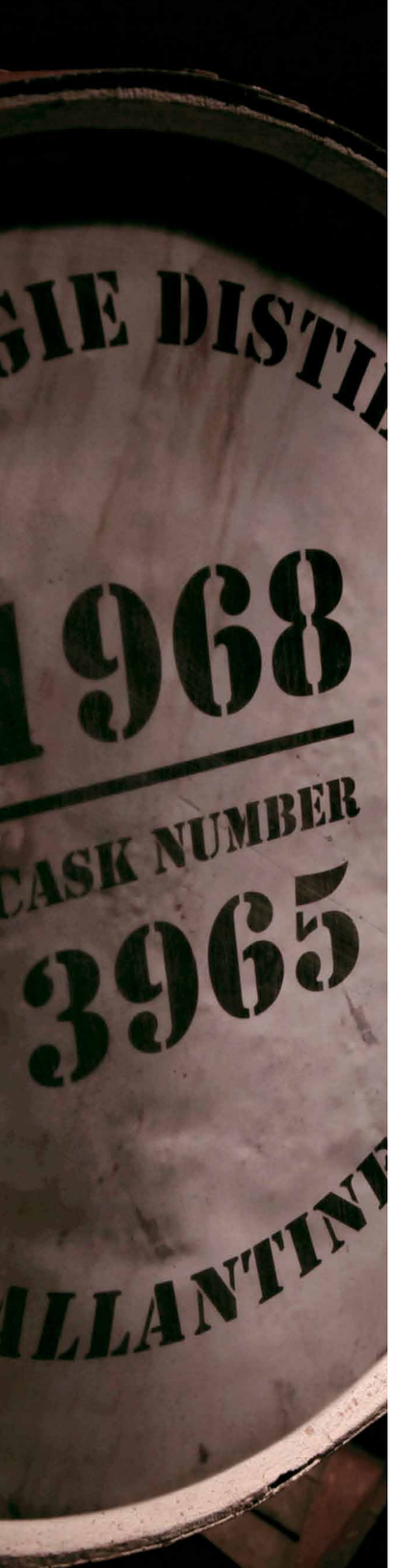
그러나 역시 가장 인기 있는 테이블은 테라스 석. 특별한 날, 수작을 찾으려면 미리 좌석을 예약해두는 정도의 센스는 필요할 듯하다.

"수작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곳이 되어 발렌타인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아지트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작' 정재윤 대표는 발렌타인 애호가다. 특히 그는 발렌타인 17을 애음하는데 무엇보다 깔끔한 맛과 좋은 품질이 발렌타인만의 프리미엄 이미지와 잘 맞는다고 이야기한다. 다만, 아쉽게도 술을 전혀 마시지 못하는 아내 때문에 그녀와 함께 좋은 술을 즐길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는다고.

"저는 인복이 많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바를 운영하는 것도 저에게는 행운인데 함께 일하는 친구들이 모두 가족과도 같아요. 제가 없어도 직원들이 알아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물론 저보다 더 발렌타인을 잘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공간을 찾는 손님들 모두에게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곳'을 선사하며 편히 쉬실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술이요?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발렌타인'이 있잖습니까."

수작 |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27-17 3F **전화번호** 02-523-9923 **운영시간** 07:00 pm~03:00 am



Ballantine's®

LEAVE AN IMPRESSION

3rd. vol. Ballantine's Magazine

매거진 발렌타인은 품격 높은 테이스트와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분들을 위한 프리미어 블렌딩 오브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입니다. 발렌타인만의 고유한 헤리티지 및 브랜드 뉴스와 함께 하이클래스를 위한 트렌디하면서도 실용적인 양질의 컨텐츠만을 전달합니다.

제호
발렌타인

발행일
July 15, 2012

발행처
페르노리카 코리아 발렌타인 마케팅팀

주소
137-858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28-3 나라빌딩 21층
www.pernod-ricard-korea.com
www.ballantineschampionship.com

Planning & Design
㈜헤즈 www.heaz.co.kr

Edit
㈜헤즈, 카야프렌즈

Photographer
송상섭, 박중하

〈발렌타인 매거진〉에 실린 글, 그림, 사진은 발행사인 페르노리카 코리아에 저작권이 있으며,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발렌타인 매거진〉 구독 문의 및 안내 02-3466-5700

ELEMENTAL CHLORINE FREE GUARANTEED
본 매거진은 우리의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여
무염소 표백펄프(ECF) 친환경 종이를 사용하였습니다.